

한국문학탐방 II

발표 자료집

2016

(3월 31일 ~ 4월 2일)

전라북도

(익산, 군산, 고창, 정읍, 남원)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탐방 II

발표 자료집

2016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1. 탐방단 구성 --- 5p
2. 버스 좌석표 --- 6P
3. 방 배정표 --- 8P
4. 답사 일정표 --- 11P
5. 지도 --- 12P
6. 답사 보고서 --- 14P
7. <1조> 서동요, 정음사, 상준곡 --- 16P
8. <2조> 탁류 (채만식) --- 23P
9. <3조> 서정주와 시 --- 32P
10. <4조> 혼불 (최명희) --- 41P
11. <5조> 동학농민운동과 문학 --- 50P
12. <6조> 금오신화 (김시습) --- 59P
13. <7조> 준향전 --- 67P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체진행 : 학생회장 (강덕원 010-8343-9918)

발표사회 : 답사부장 (박정현 010-9778-1179)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 (이소정 010-5365-9153)

자료집제작 : 편집부장 (박은지 010-2997-6821)

재정 및 진행기록 : 조교 (김유미 010-9366-9340)

조	조장&부조장	재학생	신입생	단순참가자
1	고은지 이제훈	김주성	김도휘 권연송 이혜원 장윤수	이지원
2	박현경 박지은	김홍인	김영운 김예지 이정민 장은혜	김기훈
3	이하늘 우정민	송예지 김혜빈	남윤진 김원목 이서영 전누리	오효석
4	권순영 장은영	정현아 박정현	김진서 이단비 전소민	박선욱
5	김희인 김유나	김주형	이슬훈 박진경 채민영 홍예지	박선우
6	장성은 김진경	이정욱 이소정	이제영 손은정 엄지호	
7	서채린 박은지	강덕원 안혜린	정주호 안예은 최예진	

조	주제
1	서동요, 정읍사, 상춘곡
2	탁류(채만식)
3	서정주와 시
4	혼불(최명희)
5	동학농민운동과 문학
6	금오신화(김시습)
7	춘향전

<배차>

-1호차 : 1조, 2조, 3조, 이병기 교수님, 박정현(답사부장), 김유미(조교)

-2호차 : 4조, 5조, 6조, 7조, 신서인 교수님, 오춘택 교수님, 강덕원(학회장), 이소정(부학회장)

<주의사항>

-답사지에서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진행함

-자유 관람 시 안전을 위해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함

-명찰은 반드시 패용할 것

-교수, 조교, 인솔담당 학생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1호차) / 1-3조

기사님	계단
조교 김유미	기획&답사부장 박정현 (무전기)
이지원	이병기 선생님
고은지 박현경	김기훈
김주성	우정민
이제훈	송예지 김혜빈
이혜원 장윤수	남윤진 김원목
김도휘 권연송	이서영 전누리
박지은 김예지	이정민 장은혜
김영운	김홍인
이하늘	오효석

--	--	--	--	--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2호차) / 4-7조

기사님
부학회장 이소정 (무전기)
오춘택 교수님
이정욱
장성은
김진경 이제영
손은정 엄지호
김유나 김희인
채민영 홍예지
이솔훈 박진경
김주형 권순영

계단
학회장 강덕원 (무전기)
신서인 교수님
박은지 서채린
정주호
안예은 최예진
안혜린 정현아
장은영 전소민
김진서 이단비
박선욱
박선우

--	--	--	--	--

한국문학탐방 방 배정표

1일차 선운산 유스호스텔 (고창)

남학생 1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0	이정욱(방장)	11	김홍인
15	우정민	12	박선우
16	김영운	16	남윤진
16	정주호	16	김도휘

남학생 2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1	이하늘(방장)	11	김주성
12	박정현	16	이솔훈
15	이제훈	16	이제영

남학생 3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1	장성은(방장)	11	김주형
11	강덕원	12	권순영
14	박선욱	12	김기훈

여학생 1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고은지(방장)	15	김유나
16	김진서	15	김혜빈
16	김예지		

여학생 2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김희인(방장)	13	이지원
16	안예은	16	박진경
16	손은정		

여학생 3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박은지(방장)	14	이소정
16	이서영	15	송예지
16	이단비	16	엄지호

여학생 4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서채린(방장)	15	장은영
16	이정민	16	전누리
16	이혜원	16	채민영

여학생 5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안혜린(방장)	15	정현아
15	박지은	16	최예진
16	전소민	16	홍예지

여학생 6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박현경(방장)	15	김진경
16	장윤수	16	김원목
16	장은혜	16	권연송

2일차 지리산 하이츠 콘도 (남원)

남학생 1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0	이정욱(방장)	11	김홍인
12	박선우	15	우정민
16	김영운	16	김도휘
16	남윤진		

남학생 2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1	이하늘(방장)	11	김주성
12	김기훈	15	이제훈
16	정주호	16	이제영
16	이술훈		

남학생 3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1	장성은(방장)	11	김주형
11	강덕원	12	권순영
12	박정현	14	박선욱

여학생 1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고은지(방장)	15	김유나
15	김진경	16	권연송
16	김예지	16	김진서
16	김원목		

여학생 2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김희인(방장)	13	이지원
15	박지은	15	김혜빈
16	손은정	16	박진경

여학생 3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박은지(방장)	14	이소정
15	송예지	16	엄지호
16	이단비	16	이서영
16	안예은		

여학생 4실 - () 호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서채린(방장)	14	박현경
16	이정민	15	장은영
16	이혜원	16	전누리
16	장윤수		

여학생 5실 -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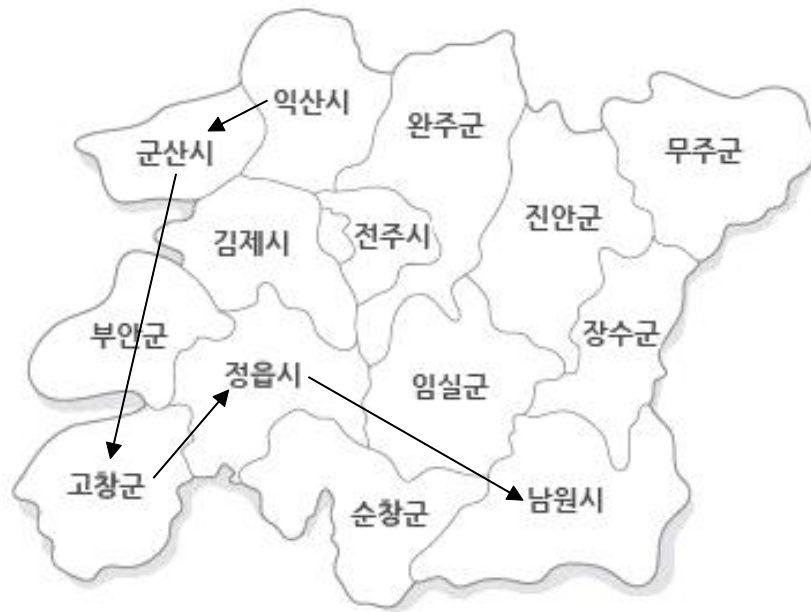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4	안혜린(방장)	15	정현아
16	홍예지	16	최예진
16	전소민	16	장은혜
16	채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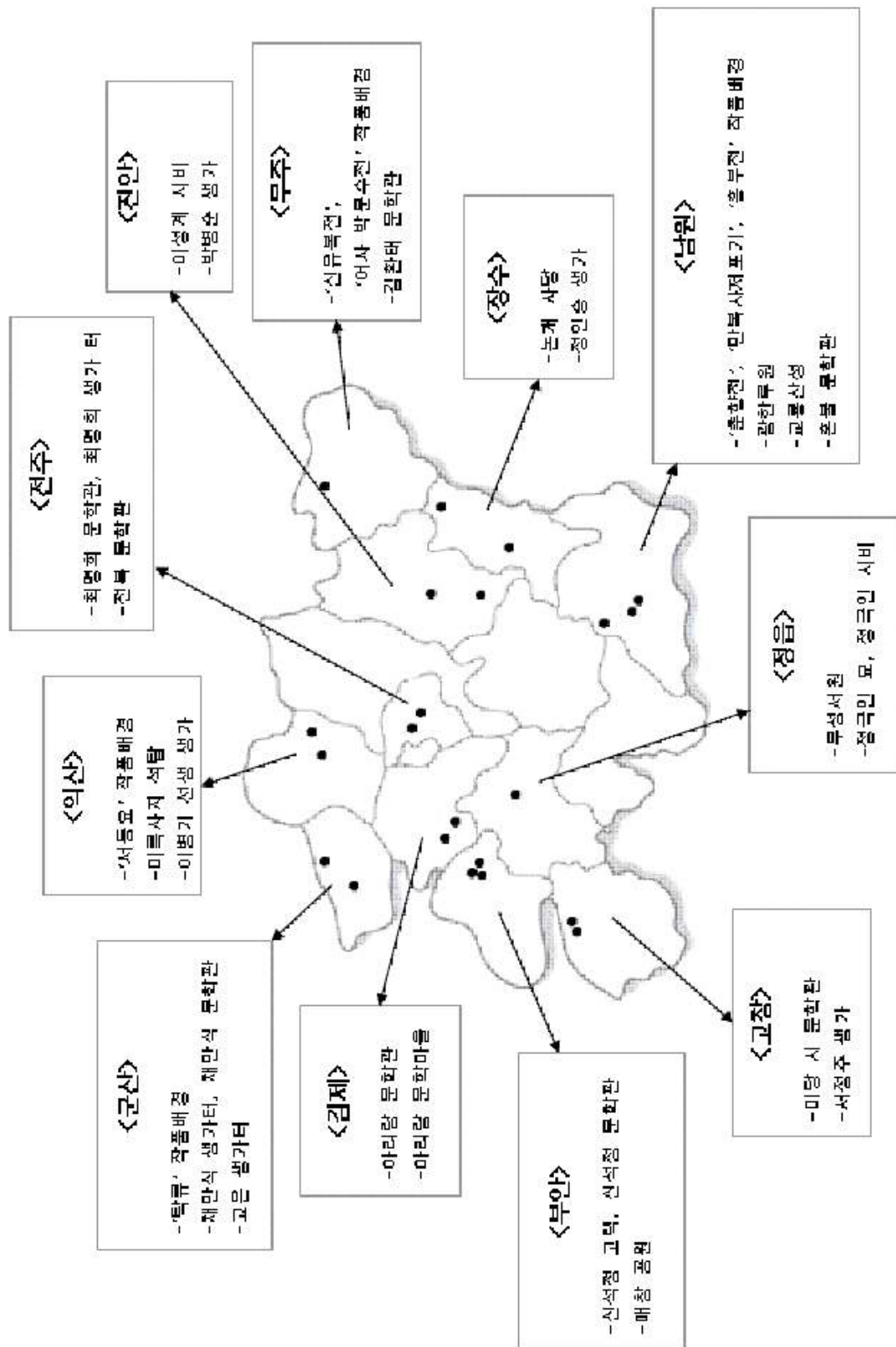
《 2016학년도 탐사 일정표 》

※ 전라도 북부 일대 : 1일차 (익산, 군산, 고창) / 2일차 (고창, 정읍, 남원) / 3일차 (남원)

	1일차 03.31(목)	2일차 04.01(금)	3일차 04.02(토)
06시		00 인원점검 및 선운사 출발(150)	
08시	07:40 춘천(한림대) 집합 00 춘천→익산 이동	30 숙소 도착,朝食	00 朝食, 숙소 출발(60)
09시		30 인원점검 및 미당시문학관 이동(10) 40 미당시문학관(50)	00 인원점검 및 광한루원 이동(10) 10 광한루원(80)
10시		30 고창→정읍 이동(60)	00 광한루원→만복사지 이동(10) 10 만복사지(50)
11시		30 중식(50)	00 인원점검 및 남원→춘천 이동
12시	00 익산 도착, 미륵사지석탑(60)	20 정읍사공원(20) 40 정읍사공원→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이동(30)	00 중식(60)
13시	00 중식(50) 50 익산→군산 이동(40)	10 동학농민혁명기념관(40) 50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무성서원 이동(40)	
14시	30 채만식문학관(40)	30 무성서원(30)	
15시	10 채만식문학관 →진포시비공원 이동(10) 20 진포시비공원(30) 50 진포시비공원 →근대역사박물관(10)	00 정읍→남원 이동(90)	
16시	00 근대역사박물관(70)	30 혼불문학관(60)	00 춘천(한림대) 도착
17시	10 군산→고창 이동(90)	30 혼불문학관→식당 이동(30)	
18시	40 석식(60)	00 석식(50) 50 식당→숙소 이동(10)	
19시	40 식당→숙소 이동(10) 50 개인 정비(10)	00 개인정비(20) 50 퀴즈 및 소감문 작성(50)	
20시	00 소감문 작성(50) 50 토의(조별) ※소감문제출	40 토의(조별) ※소감문제출	
22시	00 개인정비 및 취침	00 개인정비 및 취침	
숙식	朝食 : 김밥 제공 중식 : 미륵산순두부(순두부찌개) 석식 : 보리쌈밥(쌈밥)	朝食 : 유스호텔 제공 중식 : 정읍사한우관(육회비빔밥) 석식 : 지리산 흑돈 정육식당 (삼겹살)	朝食 : 콘도 제공 중식 : 추어탕 or 조별 자유식
	숙소 : 선운산 유스호텔	숙소 : 지리산하이츠콘도	※답사 후 소감문 제출

〈탐사 여정〉





<답사 보고서> (일일 제출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 보고서를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들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학 번		이 름	
답사지	관찰내용				특기 사항
【감상 : 문학 탐방과 관련하여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기타 감상 : 좋고 고맙고 감동적이었던 부분】					

메 모 장

1조 - 서동요, 정읍사, 상춘곡

1. 무왕과 미륵사

국어국문학과 20151126 이제훈

백제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익산의 미륵사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절 가운데 백제의 절로는 최대의 규모이다. 이 절터는 한국에서 가장 클 정도로 절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석탑들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익산에 이러한 절과 탑이 만들어 졌을까? 익산은 한성·웅진·사비와 달리 백제의 서울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지방 익산에 거대한 미륵사를 지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왕 재위 시기 백제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한강 유역을 모두 상실한 채 공주를 거쳐 사비에 도움을 청하고 고구려와 신라의 위협 속에 힘겨운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더구나 무왕은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익산에서 마를 캐며 생활하던 서동이 왕이 되었다는 전설은 정상적 왕위 등극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다. 무왕이 왕이 되기 전, 백제의 왕위는 귀족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다. 무왕 이전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아주 짧았던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세력이 약한 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익산 지방에 살던 몰락 왕족 출신 서동을 왕으로 만들었다. 선화공주와의 결혼 또한 정략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무왕은 자신을 둘러싼 귀족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당당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던 익산에 거대한 미륵사 창건을 주도했다. 단지 미륵사를 창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왕 자신이 미륵불이 되고자 했다. 나아가서 수도를 귀족들의 세력 근거지인 사비에서 익산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정략결혼의 대상이었지만 왕비의 친정이던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한 것도 익산으로 도움을 옮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가 점령한 가야를 차지한다는 명분으로 그 전진기지 익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익산 천도를 정당화시켰다. 하지만 귀족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백제의 왕이 되고자 했던 무왕의 꿈은 아들 의자왕에 이르러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나·당 연합군 앞에서 백제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조경철, 「왜 백제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나?」, 내일을여는역사 편집부, 2006, p.128-137
미륵사지석탑 :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www.mireuksaji.org

2. 서동요 해석과 설화

인문학부 20161107 권연송

1) 서동요 해석

<서동요 薯童謠> 원문

<양주동 해독>

<김완진 해독>

善化公主主隱(선화공주주은)

선화공주니은

선화공주니리은

他密只嫁良置古(타밀지가량치고)

넌 그으지 얼어두고

넌 그속 어러 두고

薯童房乙(서동방을)

맛등방을

薯童 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야의묘을포견거여)

밤미 물 안고가다

바매 알홀 안고 가다

양주동과 김완진은 『삼국유사』에 3구로 기록된 서동요(薯童謠)를 4구로 나누어 읽어 해독했다. 양주동은 ‘밀지(密只)’를 ‘그으지’라 하고, ‘묘을(卯乙)’을 ‘물(래)’ 라고 해독했지만, 김완진은 ‘묘을(卯乙)’을 ‘알(난)’으로 보고 ‘바매 알홀 안고 가다’ 라고 읽었다. ‘알을 안고 간다’ 는 것은 남녀관계에 대한 일종의 은어이거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서동요 설화

『삼국유사』 권2에는 서동요의 배경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백제 제 30 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는 서울(부여)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못의 용(龍)과 관계를 맺어 장을 낳았다. 그는 기량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그는 항상 마(麻)를 캐어 팔아서 살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서동(薯童)이라고 불렀다. 그는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으므로 고귀한 혈통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과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 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가난하여 늘 마를 캐며 살아야했다. 하지만 그는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들어가 마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부르게 했다. 결국 그는 공주를 꺾어내어 아내로 맞이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백제의 왕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서동은 어린 시절의 시련을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영웅 이 된 것이다. 서동 이야기의 뒷부분에 지명법사가 많은 양의 황금을 옮겨주는 장면이 서술 되어있는데, 이것은 불교적인 위력을 표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작되었다. 이 설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시 민중들의 부귀를 향한 염원이 반영되어 이것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존인물 위에 허구적 성격이 가미된 설화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김종진,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3. 미륵사지 석탑

국어국문학과 20141103 고은지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최대의 절이었던 익산 미륵사지 내(현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에 위치한 탑으로, 탑이 세워진 시기는 백제 말 무왕(재위 600~641)대로 추정된다. 기단(基壇)은 목탑과 같이 낮은 1단을 이루었다. 탑신(塔身)은 초층 몸돌 사면이 3칸씩이고, 가운데 칸에 사방으로 문을 만들어 내부가 통하게 만들었으며, 탑 내부 중앙에는 거대한 사각형 찰주(擦柱)를 세웠다. 1층 몸돌의 네 면에는 모서리기둥을 세웠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볼록한 목조건축의 배흘림기법을 따르고 있다. 기둥 위에도 목조건축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재료인 평방(平枋)과 창방(昌枋)을 본떠 설치하였다. 지붕돌은 얇고 넓으며, 네 귀퉁이에 이르러서 살짝 치켜 올려져 있다. 2층부터는 탑신이 알아지고 각 부분의 표현이 간략화되며, 지붕돌도 1층보다 너비가 줄어들 뿐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 미륵사지석탑 기단부

▲ 미륵사지석탑 탑신조형

▲ 미륵사지석탑 탑신조형

그러나 백제 중흥에 대한 무왕의 기원을 머금고 있는 이 탑은 17세기 이전에 붕괴되고 만다. 미륵사지 석탑은 본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절반 이상이 붕괴돼 6층까지만 남게 되었다. 게다가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위에 콘크리트로 보강하였고 최근까지 절반이상 무너진 상태로 존속되어 왔다. 문화재 관리 당국의 안전 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돼 2001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현존 최고(最古)이자 최대(最大)의 탑으로, 목조탑파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한국 석탑의 기원이 되는 탑으로,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11호로 지정되었다. 1층 내부에 있는 십자형 통로와 심주, 천장 구조 등은 고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양식상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참고문헌》

익산 미륵사지 석탑, 문화재청 : www.cha.go.kr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시 문화관광 : iksan.gojb.net

사설, 「일제가 훼손한 문화유산 다시 태어나는가」, 새전북신문, (2016-08-13)

4. 정읍사

인문학부 20161078 이해원

1) 배경 설화

노랫말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사』 악지에는 정읍사의 언급이 최초로 등장한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 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

2) 작품과 해석

고어 표기	현대어 표기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달아 높이 높이 돈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치게 하시라 어기야차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쉴저재 녀려신고요 어기야 존딇를 드딇올세라 어기야 어강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진 곳을 디딜세라 어기야차 어강요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딇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시라 어기야차 나의 가는 곳에 저물세라 어기야차 어강요리 아으 다롱디리

1연에서의 달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천체일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이다. 2연에서의 ‘존딇’은 말 그대로 진탕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내를 제외한 여자를 뜻하기도 한다. 표면상으로는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남편이 주색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3연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 문학사적 의의

정읍사는 백제가 망한 660년 이전에 창작되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궁중에서 향유되다가, 적어도 800년이 지난 15세기 말에 정착된 매우 오래된 작품이다. 또한 남편에 대한 지고지순한 아내의 정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추앙받고 있다.

《참고문헌》

강혜정, 「김천택의 교유와 <청구영언>의 편찬 과정 검토」, 한국시가문화연구, 2010

이등룡, 「방법론의 반성, 정읍사(井邑詞)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연구소, 2003

5. 정읍사 공원

국어국문학과 20111112 김주성

1) 정읍사공원 소개



▲정읍사공원의 전경과 망부석



▲악보와 함께 쓰인 현대어식 <정읍사>

정읍에는 정읍사비와 망부상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읍사공원의 망부상과 정읍사 비이다. 정읍사공원의 맨 위쪽에 자리한 망부상은 1986년 12월 2.5m 화강암으로 건립되었다. 약간 긴 저고리에 옷깃을 따라서 저고리 아래쪽까지 단이 있으며 머리는 양쪽으로 쪽을 짓고서 두 손을 마주잡고 서있는 모습이다.

반 코트식에 아래까지 단이 있는 것은 고구려 벽화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고구려 복식이다. 학계에서는 백제시대 의복에 대해서 옛 문헌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바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복식을 연구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읍사는 현대감각에 맞게 새로이 개사된 것이다. 이는 지역 출신 KBS 관현악 단장 김강섭의 작곡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시민들의 뜻으로 기다림의 정서가 적절한 백제노래 정읍사와 정읍의 향토문화예술을 자랑하기 위해 1996년 12월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정읍사 공원에는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사국악원, 시립도서관, 야외공연장,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향토색 짙은 수준 높은 지방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정읍사 문화제

정읍사 문화제란 정읍시의 주최로 10월 중, 하순에 열리는 문화제이다. 백제가요인 정읍사 가요제를 주된 행사로 하며 시민들을 위한 기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야제(거리 퍼레이드)는 정읍사문화제 및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리행진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화합분위기의 조성과 아울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채수의례란 채수를 통해 정화수의 의미(정읍사 여인과 같이 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무사 기원, 가족의 행복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 혼례의식 등)를 되새기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날,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식전공연)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의장, 부도상, 장수상 등 모범시민을 표창하며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읍사 문화제 : www.jchf.or.kr

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월인, 2011

6. 정극인

인문학부 20161087 장윤수

1) 정극인의 생애, 작품 활동

정극인은 조선 전기 때의 학자이며 광주 출신으로, 본관은 영성(靈成),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현(不優軒) · 다현(茶軒) 또는 다각(茶角)이다. 1472년(성종 3) 절의(節義)가 높고 영달을 탐하지 않고 후진양성에 힘쓴 공으로 삼품교관(三品敎官)이 되었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가사(歌辭) 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지었다. 태인 고현동을 중심으로 가사문학의 전통이 전라도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최근까지 가사문학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불우현집(不憂軒集)》이 있다.

정극인의 작품은 후손인 정효목이 수집, 간행한 불우현집(不憂軒集)에 속해 있는 불우현가, 불우현곡, 상춘곡이 있다. 불우현의 가곡 중 불우현가(不憂軒歌)는 경기체가 형식의 단가(短歌)로 저자가 후진교육에 힘쓸 때 성종이 내린 상을 감사하면서 한가하고 즐거운 생활을 노래한 것으로, 한문체로 되어있다. 불우현곡은 임진년(1427, 성종3) 임금의 은혜가 망극함을 생각하여 고려의 한림별곡(翰林別曲) 음절에 따라 지은 작품이다.

특히 ‘불우현집’의 ‘상춘곡’은 조사법이 자연스럽고 표현기교 또한 아래해서 양반가사 중 일품으로 꼽고 있다. 상춘곡은 조선 전기의 작으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봄의 경치와 이웃에게 산수 구경을 권하는 등 자연에 묻혀서 사는 풍류를 노래하고 안빈낙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상춘곡은 이서의 악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청산별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호남가사문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관련 유적



통일신라 때 태산고을이었던 칠보면 무성리에는 최치원의 위패를 모신 무성서원이 있다. 원래는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태산사를 ‘태산서원’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숙종22년(1696)에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아 무성서원이 되었다. 조선 성종 15년(1484)에 퇴락한 태산사를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고, 중종 39년(1544)에는 태인 현감을 지낸 신잠을 합사(合祠)했으며, 그 밖에도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을 함께 배향하게 되었다. 입구에는 낡은 홍살문이 있고, 비각, 현가루, 강당, 태산사 등이 남아 있다. 이 중 태산사 건물은 성종15년(1484)에 세워져 현종 10년(1844)에 중수했고, 강당은 순조 25년(1895)에 불타 없어져 순조28년(1828)에 중건하였다.

《참고문헌》

김성기,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한국시조학회, 2003, p.155-177

이상보, 「정극인의 상춘곡연구」, 명지어문학회, 1974

권영철, 『국문학연구 2』, 「불우현 가곡연구」, 효성여자대학, 1969

무성서원 문화재청 : www.cha.go.kr

7. <상춘곡>

인문학부 20161009 김도휘

<상춘곡>은 3·4조, 전장 79구로 이루어진 가사로, 작자(정극인)가 고향에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성격의 노래이다. 표기법은 창작 당대(15세기)의 것이 아니고, 후손에 의해 <불우헌집>이 간행된 18세기의 음운과 어법에 따르고 있다.

<상춘곡>의 간단한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紅塵(홍진)에 뒹군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넷 사롬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뒹군 이셔 至樂(지락)을 맛볼것가.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작품의 내용에는 서사·춘경·상춘(취락)·결사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서 속세를 ‘홍진’이라는 단어로 부정적이게 묘사하며 세속의 사람들을 화자와는 대조적인 사람들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서사의 내용은 그 속세를 떠나 벽계수를 앞에 두고 초가삼간을 지어 자연을 벗 삼은 풍월주인적인 삶을 노래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춘경과 취락 단락에서는 봄 경치를 즐기며 자연과 친화적인 삶이 비유적, 감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공명(功名)도 날 꺾우고, 부귀(富貴)도 날 꺾우니’라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삶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

한국의 시가문학상 가장 큰 꽃을 피웠던 가사는 정극인으로부터 발단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의 가사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설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상춘곡>은 송순의 <면앙정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에서는 강호한정(江湖閑情)의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가사의 첫 작품이며 산림처사(山林處士)로서의 은일생활(隱逸生活)을 노래하여 사림과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창작을 계기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시풍이 형성되었으며, 가사 문학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시문학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석산, 「<상춘곡(賞春曲)> 구조 연구」, 한국고전문학회,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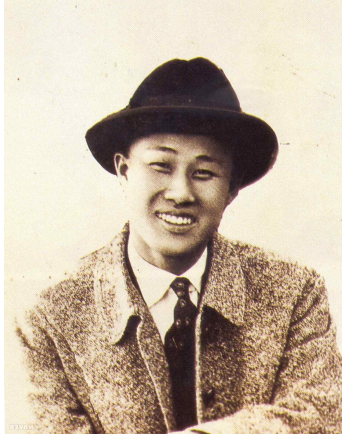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학회, 2006

양희찬, 「<상춘곡(賞春曲)>의 작자(作者)에 대한 고찰(考察)」, 민족어문학회, 2012

2조 - 탁류 (채만식)

1. 채만식의 생애

인문학부 20161089 장은혜



채만식(1902-1950)은 전라북도 옥구군 읍내리에서 채규섭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평강이며 호는 백릉, 채옹이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고, 임피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18년에는 상경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중앙고보 2학년인 18세 때 집안의 강권으로 한 살 위인 은선흥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숙명여고 출신인 둘째부인 김씨영과 재혼하여 2남 1녀를 낳았다. 이후 1922년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제일와세다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관동 대지진의 발생과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1년 6개월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1923년 동아일보 학예부 기자로 취직한다.

채만식은 이광수의 추천으로 1924년 12월 <조선문단>에 단편 소설 「세길로」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하였다. 그 전까지 그는 「황금원」, 「과도기」 등 두어 편의 습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길로」부터 「레디 메이드 인생」이 발표되기까지 10년간 1926년에는 조선일보로, 이후 개벽사로 자리를 옮겨 기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채만식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시작되었다. 1933년과 1934년에는 조선일보, 신동아 등에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레디 메이드 인생」을 발표하며 활발한 문예 활동을 펼쳤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창작에 전념하여 「탁류」, 「천하 태평춘」 등의 작품을 써내면서 당대 문단의 문제적인 작가로 떠올랐다.

1939년, 채만식은 불온 독서회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개성 경찰서에 잡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 전까지 채만식은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특수한 생활과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창씨개명을 끝내 거부했고 단발령에도 맞섰다. 하지만 독서회 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회유와 억압에 영향을 받아 「여인 전기」와 같은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는 작품을 썼으며, 시찰단이나 위문단의 일원으로 만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민족의 죄인」, 「역로」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일제 말기 자신의 친일 행위를 자책하였고 동시에 진보적 중간파의 입장에서 해방 직후 과도기의 혼란상과 부정적 현상 등을 풍자, 비판하였다.

채만식은 1949년 6월 탁류의 인세수입과 소설 몇 편의 원고료를 합해 난생 처음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리한 집필로 인한 폐결핵의 악화로 집을 처분하고 마동 269번지에 반토담집으로 이사했다. 1950년 6월 11일 48세의 나이로 익산시 마동에서 사망하였으며,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 계남리 선산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염무웅, 『한국대표 명작총서 채만식』, 벽호, 1993, p.250-253

2. 채만식의 작품세계

인문학부 20161075 이정민

채만식 작품 세계는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 되어 있다. 그는 농민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등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적 기법에서 큰 수확을 거둔 작가로 평가됨과 동시에 근대 리얼리즘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풍자는 당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작가의 날카롭고 엄정한 비판정신이 전제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채만식의 작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부정적 ‘세태’를 풍자한 소설, 부정적 ‘주인공’을 풍자한 소설, 부정적 ‘화자’를 풍자한 소설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부정적 ‘세태’를 풍자한 소설에서 사용되는 풍자기법은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고 인물과 환경(세태)의 두 갈래의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예로, 채만식의 작품 「레디메이드 인생」과 「소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에서는 이들의 불행과 고통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신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다른 예로 「논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사회에 대한 풍자가 보다 강렬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또한 주인공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앞의 두 작품보다 풍자효과가 강한 이유는 한생원이 지식인이 아닌 무지한 농민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을 이렇게 그려냄으로써 본인의 잘못보다는 사회적 부조리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정적 ‘주인공’을 풍자한 소설에서 사용되는 풍자기법은 부정적 인물 한 사람에게 집중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예로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풍자적 효과는 자신의 무지와 몰락을 자신만 모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특히 화자가 독자와 대면하는 가운데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판소리의 서술상황을 도입한 작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독자와 완전한 통속이 되어 대상을 마음껏 조롱하고 야유하게끔 함으로써 풍자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우리나라 풍자문학의 정상을 차지한 이유는 작가의 현실 비판적 안목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작가적 재능을 우리의 전통과 접목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부정적 ‘화자’를 풍자한 소설에서 사용되는 풍자기법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화자의 가치관이 왜곡 되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화자가 스스로를 비판하고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로 채만식의 「치숙」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가치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다. 따라서 화자는 독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화자가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보다 자신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장편소설 「탁류」는 위의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풍자 소설이다. 이 작품은 풍자소설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성장소설 혹은 비판적 리얼리즘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탁류」가 지닌 뛰어난 상징성과, 계몽과 승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세태소설이나 저급한 통속소설로 전락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되었다. 채만식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자기모순을 정직하고 날카롭게 표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서술양식과 판소리 서술양식의 도입양상을 통해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어문학회, 『채만식 문학연구』, 한국문학사, 1997

3. 채만식의 문학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채만식은 ‘풍자문학’으로 유명하다. 판소리와 같은 굵이굵이한 문체도, 허무주의적 경향도 두드러지지만 그보다 부정적 인물을 전면에 드러내어 우회적 서술을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향토적이고 늘어지는 문체로 굵이굵이 풀어낸 그의 서술 속엔 어딘가 씁쓸하고 해학적인 맛이 배어 있다.

채만식의 문학세계는 판소리적 문체와 풍자성에 대한 것 외에는 그리 특이한 것이 없다. 그는 순수예술지향적인 성격으로 중·단편 소설뿐만 아니라 시, 희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작품 활동한 다작 작가이다. 그는 시보다 산문을 더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시는 소설을 공부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하며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문제에 가치를 둔 탓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 탓에 그의 문학세계 인물들은 다소 뻔한 캐릭터성을 지닌다. 흔히 사회주의적 작가들이 그러하듯, 지주계급이나 배급주의자로 통용되는 명확한 부정적 인물이 작품에 등장하고 그에 반대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부정할 수 없이 한국 전기문학의 거장이다. 채만식은 중·장편소설 15편, 단편소설 70여편, 희곡·춘극·대화소설·시나리오·방송극 30여편, 문학평론 40여편 수필 및 잡문 140여 편 등 많은 작품을 썼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하였다. 특히, ‘대화소설’이란 것이 있는데, 단락마다 장소표시만 했을 뿐 지문 없이 대화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다. 게다가, 많은 작품을 쓰면서도 소설의 형태, 문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검열이라는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면적 묘사와 풍자 같은 우회적 서술 그리고 일인칭·삼인칭의 전지적·객관적·논평적 시점을 취하기도 하고, 고전 판소리 사설의 서술 수법을 끌어오며, 반어·회화·역설·패러디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문학적 의의를 평가해 볼 때, 식민치하 지식인들이 행했던 맹목적인 계급주의 사상에 대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 질적으로 양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남긴 열정적인 작가로 평가된다. 또한, 이제 막 근대화가 된 전기 한국에서 다양한 문학적·예술적 양식을 수용하여 전파하였고, 시대반영을 한 다양한 작품으로 그 시대상을 알아보는데 훌륭한 자료를 남겨주었다.

채만식은 한국전기 문인의 전형이나 최절정에 다다른 인물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그만의 토속적이고 굵이굵이한 판소리적 문체는 검열을 피하며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다소 평면적이고 진부한 인물상이 특징인 계급주의적인 시대 한계에 부딪쳤으나, 계급투쟁에만 목숨을 건 카프문학과는 달리 그의 작품들은 모두 훌륭한 작품성을 갖추었다. 또한, 같은 해학적인 글을 썼지만 순수문학을 추구한 김유정과 달리, 시대상을 우회했을 뿐 사실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 덕분에 그 절망적인 시대상이 잘 나타나 사료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채만식의 문학은 단순히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에 이르는 4대 다작작가일 뿐이 아니라, 한국 근대 문학을 알아보는데 필수적으로 거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채만식, 『탁류』, 한국소설문학대계14, 1995, p.542-545

4. 『탁류』의 줄거리

국어국문학과 20141121 박현경

『탁류』는 1937년 10월부터 1938년 5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신문연재 장편소설로써, 식민지 조선의 도시 하층민들의 삶의 모습과 주인공 초봉의 기구한 일생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탁류』의 서두는 금강을 묘사하는 데서 시작한다. 군산에 미두라는 투기가 성행하던 시절, 정주사는 친구학문을 고루 익히고 군청에선 일하던 인물이나 당시 유행하던 미두에 빠져 탕진한다. 그에게는 초봉과 계봉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초봉은 용모가 예뻐 탐내는 남자들이 많았다. 초봉은 정주사가 미두에 미쳐 가세가 기울어지자 약국에 취직을 했다. 약국 주인 박제호는 초봉에게 추근거리지만 그의 아내의 훼방으로 실패한다. 초봉의 마음은 비교적 건실한 청년인 승재에게 향하지만, 부모의 권고로 은행원 고태수와 결혼한다. 그러나 형보라는 악독한 인물이 태수를 꾀에 빠뜨려 초봉을 차지하려고 한다. 결국 태수는 형보의 꾀에 빠져 간통 현장에서 맞아 죽고, 초봉은 형보와 억지로 살림을 하게 된다. 얼마 후, 초봉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딸을 낳아 송희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형보가 딸을 괴롭히자 초봉은 형보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순간 분을 참지 못해 그를 멧돌로 살해한다. 그리고 초봉은 동생 계봉과 애인이 된 승재의 권유로 자수를 한다.

제목에서 상징하고 있듯이 『탁류』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인 무질서의 격류 속에 휩쓸린” 탁류 같은 탐욕과 죄악이 물고 온 삶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처음에는 맑던 강물이 점차 탁하게 바뀌어 가는데, 이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민족의 기구한 운명과 가혹한 수탈로 인해 비참해진 초봉 일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 채만식이 어릴 적부터 그 엄청난 수탈의 현장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 이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식민지하의 지주 계급들은 급성장한 반면 자작농이나 소농가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당대의 우리 사회를 리얼하게 포착한 것이다.

흔히 『탁류』를 「태평천하」와 함께 채만식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고, “희망없이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사회적 현실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 작품이라고 극찬한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물의 수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지만, 미두와 같은 당대의 식민지 수탈을 드러내는 풍속과 연애관 등이 소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연재 예고에서 채만식은 ‘생활을 중심으로 시방 세태의 아주 작은 몇 귀퉁이를 그린 게 이 소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온건한 사회주의자와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계봉을 통해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 주고 있어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문헌》

채만식, 『탁류(상)·(하)』, 소담출판사, 1995

김용재, 「<탁류>의 서술 특성 연구: 통속성과 반영성의 거리 조정과 그 한계」,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p.1-2

안희진, 「채만식의 <탁류>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5. 『탁류』의 배경

인문학부 20161013 김영운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은 금강을 둘러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금강 하류에 위치해있는 군산항 부근이 주 배경이다. 실제로 채만식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에 있던 인물로써 군산 주민들이 겪은 아픔을 소설 속에 녹여 넣은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항을 ‘눈물의 강’이라고 부른 이유는 일제가 평온하던 군산항 부근을 계획도시로 바꾸면서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또한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인 쌀을 반출하기 위해 일제는 각종 수탈을 일삼으며 군산을 항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바꿔 버린다. 그리하여 군산항은 순식간에 일제의 수탈을 위한 산업도시로 바뀌면서 완전한 일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채만식은 가혹하고 지능적인 일제에 의해 무너져가는 고향 사람들을 보았다. 그래서 채만식은 「탁류」라는 소설 속에 자신과 유사한 인물인 ‘초봉’과 ‘정 주사’를 그려내었다. 인물들의 처지와 행동이 소설 속 인물들에서 그 시대에 조선이 처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 조선의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풍자와 해학으로 식민지가 되어버린 고향을 비참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점이라고 느껴진다. ‘힘을 합쳐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라는 느낌이 아닌 그저 그 시대를 확실하게 그려 넣은 소설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탁류의 배경인 군산지역 금강 하류 부근이다. 먼저 아래부터 보이는 조선은행은 소설 속 고태수가 다녔다고 추측되는 은행이다. 그리고 위에 꾀보선창은 앞에 꾀보처럼 골이 갈라진 물길에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현재는 복개돼 꾀보의 물길은 볼 수 없고 소설비로 남아있다.



▲금강 하류부근



▲수탈 후, 군산항에 모아놓은 쌀의 모습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일제가 수탈 후 군산항에 쌀을 모아놓은 모습이다.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인 쌀이 모두 군산항에서 모인 후 일제로 반출되기 때문에 그 양은 굉장히 많았다. 이 많은 쌀을 나른 사람들은 바로 군산 주민들이었다. 일제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보수도 없이 노동을 한 군산 주민들을 보며 채만식은 과연 ‘분노의 항구’라고 표현할 만했다.

《참고문헌》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 2001, p.200

6. 『탁류』의 특징 및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51116 박지은

채만식의 소설은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과 고발정신에 힘입어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 정치적 억압 상황 속에서 소외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편소설 『탁류』는 이 작가의 문학적 생애를 더듬어볼 때 절정기에 쓰인 작품이다. 식민지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한국 사회상을 집약한 이 작품에서는 세태의 탁류에 휩쓸리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풍자와 냉소, 욕설과 좌절감, 사기와 살인의 현실을 예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조선은 후기 식민지 사회로 일제의 경제적 침략으로 인해 더욱 황폐화되었다. 또한 식민지 억압 통치는 자유로운 문학창작의 권리마저도 박탈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작가의식을 발휘하여 모순된 사회 구조를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파헤치고, 리얼리즘적 시각으로 당대 현실을 생생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편소설 『탁류』는 식민지 현실의 총체적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작중 현실이 주로 하층민의 삶과 그 현장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탁류』는 1930년대 도시 하층민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의미한다. 작가 채만식은 이 시기 세태의 탁류 속에 휩쓸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시공간의 저변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정신적 공동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소외 계층을 주요 인물로 선택함으로써 한 시대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채만식의 『탁류』에서는 여성인 ‘초봉’의 삶을 주된 이야기로 삼았다. 초봉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혼탁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근대 식민지 시대에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여성의 인물인 ‘초봉’이 파멸되는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 모순을 고발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의 삶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대안적 인물로 초봉과는 대립되는 인물로 남성에게 독립하여 주체적 삶을 살고자 했던 ‘계봉’을 통해 상호 대립적 관계 속에서 갈등, 대립하면서 성숙하는 여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채만식 문학의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 바로 『탁류』다. 즉, 채만식이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녹아있는 것이 작품 『탁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탁류는 ‘미두’나 ‘수형할인’을 통해 식민지 착취현장인 군산항에 어떻게 식민지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의 현실을 조명하지 못한 한국 소설에 새 장을 여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탁류는 ‘봉건체제의 해체에 따라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과 식민지하에서 조선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식민지 시대에 뿌리 뽑힌 자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안희진, 「채만식 ‘탁류’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1-2, 10, 23.
유효동, 「채만식 ‘탁류’에 대한 시·공간의 구조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p.33
손세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연구 : 채만식의 '탁류'와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103

7. 유적지

인문학부 20161014 김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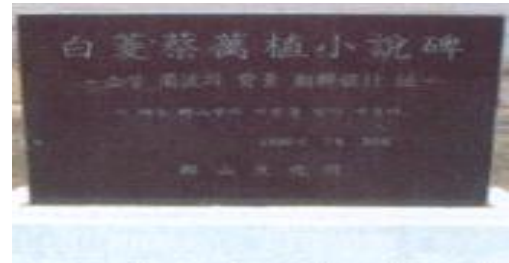
1) 채만식 생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사거리에 생가 터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그 뒤쪽으로 있는 현재 상점건물이 실제 생가 터로 전해지고 있다. 2002년에 채만식이 태어난 곳에는 비디오 가게가 폐업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무 건물도 없이 비석만 남아 있다. 금강을 도입부로 사용한 <탁류>의 무대가 군산이며, 미두(米豆) 시장과 그것을 조작하는 은행의 내막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채만식이 살아온 곳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생가 근처 숲 속에 무덤이 있는데, 그의 유언대로 들꽃에 가득 덮여 묻혀있다.



2) 채만식의 소설비

1996년 7월 30일, 군산시 장미동 구조선 은행 건물 옆에 세워진 소설비다. 「탁류」의 주요배경인 미두(米豆)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탁류의 소설무대는 바로 이곳 미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 채만식의 문학비

군산시 월명공원 안에 위치한 것으로, '탁류'의 배경이 되었던 군산시가와 금강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그의 문학을 기리기 위해 1984년에 세운 문학비에는 “탁류는 한 시대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세태의 혼탁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탐구에 크게 기여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제 유서 깊은 이 고장 도도히 흐르는 바다를, 굽어보는 자리에 정성을 모아 여기 영구불망의 한 돌을 세워 그 업적을 길이 추모하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 그지없다.”라고 새겨져 있다.



4) 채만식 문학관

금강 변에 위치해 있으며, 채만식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문학관이다.

160평 규모의 문학관은 정박한 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1층에는 채만식의 삶과 작품을 볼 수 있다.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는 채만식의 일대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참고문헌》

장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출판사, 2004

8. 『탁류』의 배경과 관련된 구절

- 금강(錦江)…….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느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짜져 가지고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면 또한 그림직할 것이다. (9쪽)

→ 이 문장과 잘 어울리는 장소는 채만식 문학관이다. 이곳은 2001년 그의 소설 탁류에 묘사된 금강 주변에 지어졌다. 문학관 주변에 금강 하구둑과 기차가 지나간다.

-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전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좌우에는 중매점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 (11-12쪽)

- 푸른 지붕을 이고 섰는 xx은행 앞까지 가면 거기서 길은 네거리가 된다. 이 네거리에서 정 주사는 바른편으로 꺾이어 동녕고개 쪽으로 해서 자기 집 '둔뱀이'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고 왼편으로 돌아 선창개로 가고 있다. (16쪽)

- 지금은 개복동과 연결된 구복동을 한데 버무려 가지고, 산상정이니 개운정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을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다리는 그냥 그 대중이고 조금도 개운은 되덜 않았다. 그저 복판에 포도 장치도 안한 십오 칸짜리 토막길이 있고, 길 좌우로 연달아, 평지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대로 사뭇 언덕 비탈이다. (24쪽)

-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 이러한 몇 곳이 군산 인구 칠만 명 가운데 육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 분의 일도 못 되는 곳이다. (24쪽)

- 정거장에서 들어오자면 영정으로 갈려드는 세거리 바른편 귀퉁이에 있는 제중당이라는 양약국이 있다. (31쪽)

- 그러나 이곳 항구 군산은 그러한 이야기는 잊은 지 오래다. 물화(物貨)와 돈과 사람과, 이 세 가지가 한데 뭉쳐 생명 있어 움직이는 조그마한 거인(巨人)은 그만한 피비린내나, 뉘 집 처녀가 생애를 잡친 것쯤 그리 대사라고 두고두고 잊지 않고서 애달파할 내력이 없던 것이다. (제 15장 '식욕의 방법론' 중)

- 셋길 소화통이 뺏어나간 뒤결으로 예전 <큰샘거리>의 복판께 가서 바로 길 옆에 나앉은 집이다. 밖에서 보기에든 추녀며 기둥이 낡지 않은 것이, 그리 묵은 집은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장독대가 박힌 좁지 않은 뜰이 우선 시원스럽다. 좌는 동향한 기억자요, 대문을 들어서면 부엌이 마주보이고, 부엌에 연달아 안방이 달리고 마루와 건넌방이 왼편으로 꺾여 있다. 그리고 뜰아랫방은 부엌 바른편에 가 달려 있다. 도배군이 셋이나 들끓고, 방이며 마루며 마다 안팎없이 종이 부스러기가 흩이아 너줄하니 널려 있어 어설프기는 어설퍼도 집은 선뜻 초봉이의 마음에 들었다. (234-235쪽)

– 미두장

소설 탁류의 중심 무대인 미두장이다. 본래 명칭은 군산미곡취인소이다. 이곳은 군산의 상징이며 치외 법권의 공인된 도박장이다. 곱추 장형보의 꿈에 빠져 미두에 손을 댄 정주사는 “미두”에서 하바꾼으로 전락해 빈손으로 하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봉변을 당하기 일쑤고 그러자면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 “미두”는 일본 대판의 미곡시세를 놓고 사고파는 증권 시장과 같은 곳이고 하바꾼은 “미두”에서 전락한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갓사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산미두는 일제가 호남 농촌 자본을 노리는 식민지 정책의 표본 이었던 것이다.

– 께보선창

지리적으로 살펴 볼 때, 금강하구로 흐르던 강줄기가 동부 어판으로 살짝 한쪽으로 께지면서 선창을 이루고 있다. 마치 께보처럼 께졌다하여 붙여진 별명 또는 께보라는 텃새 부리던 실존 인물 이름이 거론된다.

소설 중 께보선창은 정주사가 서천에서 군산으로 건너온 착지이다. 정주사는 강건너 서천 땅에서 그의 선대유산을 선산 한필지에 논 사천평과 집한채를 모조리 팔아 빚을 갚고 그의 처 유씨, 딸 초봉, 계봉 그리고 아들 형주를 거느리고 용댕이에서 똑딱선을 타고 이곳 께보선창으로 건너와 처음 발을 내딛었다. 그 후 정주사는 미두에 손을 대 남은 가산을 탕진하고 미두꾼으로 전락하여 자식 같은 젊은 미두리꾼에 먹살이라도 잡힐라치면 이곳 께보선창으로 나와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두루마기 둘러쓰고 풍덩 물로 들어 자살이라도 해볼까” 하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던 곳이다.

– 조선은행

이 조선은행은 주로 조선인들만이 거래하던 은행이다. 소설에서 고태수가 근무하던 은행이 조선은행으로 추정된다. xx은행 군산지점 당좌계좌에 근무하던 고태수는 서울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xx은행 사환으로 취직 일하면서 야간중학교를 졸업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인정받아 이 은행으로 승진 군산지점으로 전보되어왔다.



▲께보선창 앞 바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참고문헌》

채만식, 『탁류(상)』, 소담출판사, 1995.12.10

채만식, 탁류(하), 어문각, 1984년

사진출처: 문화재청, <http://cafe.naver.com/find4u/24>

3조 - 서정주와 시

1. 미당 서정주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11135 이하늘

서정주는 전라북도 고창 출생으로, 아호는 미당이나 그 이전에 익명으로 쓰기 위해 자호한 궁발과 뚝술이 있다. 그는 어려서 고향에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부안 소재의 줄포초등학교에 입학, 5년 만에 마치고 서울 중앙고보에 입학했으나, 광주학생사건 일주년을 맞아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활동하다 퇴학당하고 만다. 그 이듬해 봄, 고향의 고창고보에 편입했으나, 또 다시 학생사건에 연루되어 몇 개월 만에 중퇴하게 된다.

이후 방랑생활을 하다가 석전 박한영 대종사 문하에 들어가 불자가 되어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의 개운사 대원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불경을 공부했다. 이어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중퇴, 해인사 등지를 유랑, 고향으로 돌아와 방옥숙 여사와 결혼했다.

그는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 떠돌다가 만주로 가서 양곡주식회사 간도성 연길시 지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첫 시집 <화사집> 출간을 앞두고 만주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동대문여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그는 고향에 있는 부인과 아들을 불러 살림을 새로 차리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된다. 8.15 해방 후에는 김동리, 광종원, 조연현 등과 교류하면서 조선청년문학회협회 결성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국문학가협회 창립회원으로서 시분과위원장이 되었고, 남조선대학 창립 당시의 교수, 동아일보 사회부장 및 문화부장,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6.25 전쟁 당시 그는 대전, 대구, 부산, 등지를 종군기자로 전전하면서 피란생활을 했고, 1.4후퇴 때는 고향 근처로 피란하여 전주고교 교사 및 전시 연합대학 강사, 조선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1954년 여름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곧바로 가족과 함께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예술원 회원과 동 문학 분과 위원장, 서라벌 예술대 교수를 거쳐 동국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 동 대학교 문과대 학장 등을 역임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동 대학원 대우교수 및 동 대학원 명예교수, 경기대학 대학원 초빙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및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를 받았고, 수상경력으로는 미국 아시아재단에서 시상하는 자유문학상을 비롯하여 5.16문예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중앙일보사 주재의 문화대상 본상 등이 있다.

미당은 1936년 <벽>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되고, 동년 11월 김동리, 오장환, 김상원, 함형수 등 시인부락 도인을 경성하면서 본격화된다. 물론 이전에도 월간 및 일간 지상의 독자문단에 여러 편의 시와 산문이 발표되어 있으나, 이들은 그의 시력으로 보아 습작으로 분류된다. 이후 사망하기까지 15권의 단행시집과 이외의 시편들을 합쳐 천 편을 훨씬 넘는 방대한 시작과 산문 및 학술 논저를 출간하였다.

《참고문헌》

김학동 외,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5, p.1~7

2. 미당 서정주의 업적

인문학부 20161091 전누리

우리 현대시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미당 서정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살리고, 뛰어난 언어감각으로 많은 시인들의 우상이었다. 그가 시를 쓰는 방식이 많은 시적인 효과를 불러와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의 문학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정주의 대표작인 <자화상>에서는 산문적 문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묘사와 서술 양식에 의존하면서도 갖가지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독특한 시적 효과를 양산한다. 즉, 특정한 언어의 선택과 병치를 통해 서술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고도의 시적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삶과 인간에 대한 인식적 사유를 드러내고, 시어와 일상어의 경계를 해체하는 산문적 문체 속에서 이미지 상징을 유도하여 시적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정주의 시를 보면 일상어를 보다 과감히 시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화상>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일상적 어투로 진술되고 있다. 투박하고 일상적인 사투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시공간의 주변부적 존재들을 강력하게 유표화하는 효과를 낸다.

서정주의 완전한 줄글 형태의 산문시를 보면 대상에 대한 과도한 묘사가 이루어짐에도 독특한 시적 효과가 발생한다. 산문시는 보통 시보다 더 섬세하게 쓰여 있다. 예를 들어, <상리과원>에서 과수원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전체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장황한 묘사로 인해 지시적 기능이 강화되고, 설명적인 서술체로 인해 시 내부에는 등가성을 가진 이미지의 포착이 가능하다는 독특한 시적 효과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시는 산문성을 활용해서 삶의 주변적인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소중한 것들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서정주 시 특유의 언어적 감각에서 산출된다.

과거의 한 일화를 회상하는 이야기체의 시가 있다. 이러한 시는 이야기 전달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이미지 자체로 수렴되는 시적 기능이 우세하다. 즉, 이질적인 층위의 두 행위를 의미론적으로 동일하게 중첩시키는 은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과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 이 두 작품은 기이한 일화나 행적을 남긴 두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자아와 세계와의 서정적 교응과 같은 서정시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이야기체의 진술이다. 오히려 시적 화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익살스런 ‘이야기꾼’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 그러나 저 두 작품들에서 일상적 어휘와 어법의 과감한 차용은 요즘도 흔히 쓰이는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불러온다.

서정주는 산문성의 과감한 도입 속에서도 형식의 배치, 이미지로의 수렴을 통해 특정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등 시적 효과를 낳는다. 이렇듯 서정주는 기존의 시적 형식에 대한 관습적 규범을 전복시킴으로써 시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업적이 있다.

위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정주의 다양하고 독특한 표현방법이 있기에 현대의 다른 후배들도 그의 표현방법을 참고해서 더 나은 문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친일 작품을 썼다는 오점이 있지만 서정주의 문학적 능력과 업적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김학동 외,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5, p.606~626

3. 서정주 전반기 후반기 작품 세계의 변화와 시대상

국어국문학과 20151113 김혜빈

서정주 전기 초기에 쓰인 시는 ‘악마적이고 원색적’이라는 데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즉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퇴폐적 관능미와 저항 정신이 서정주의 강렬한 토속적 원생주의와 조화됨으로써, 그의 시는 한국 시사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미적 세계를 확대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정주의 초기 시는 강렬한 성적 욕망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성’은 현실적인 제도와 관습, 식민지의 강압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서정주의 시적 도구였다. 특히 초기 시집인 「화사집」의 ‘화사’에서는 강렬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미당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동시에 서정주에게 성은 현실과 문명을 부정하고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초기의 시가 성적 욕망이 주를 이룬다면 두 번째 시집인 「귀족도」는 우리 고유의 한과 체념이 스며들었다. ‘국화 옆에서’라는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력을 인간사와 동일시함으로써, 생명의 미감과 존엄성을 크게 드높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서정주의 시 세계와 상상력은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돌입하게 된다. ‘국화 옆에서’ 이 시는 서정주가 전통의 풍속과 생활 시기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는 시이기도 하다.

후기의 미당은 청년기의 지독한 고뇌와 방황을 겪고 6.25의 비극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더욱 성숙한 중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정신적 혼돈이 하나의 질서를 갖게 되며, 이러한 안정과 조화의 상태 속에서 그는 세상을 모두가 한 데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긍정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생전이나 사후에나 한국문학이 도달한 최고의 미학적 형상력, 또는 후대에게 미치는 가장 강렬한 미학적 감화력의 주인공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의 친일작품 발표 문제 및 독재정권 지지와 찬양 문제로 인해 문학계 안팎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가 기회주의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자아성찰을 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친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서정주 시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서정주, 『서정주 전집』, 민음사, 1994

홍윤기, 『한국현대시 이해와 감상』, 한림출판사, 1993

4. 미당 서정주의 작품활동

인문학부 20161068 이서영

미당 서정주는 1933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첫 시를 쓰게 된다. 그리고 1936년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서 1월 시로 <벽>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 후 서정주는 김동리, 오장환, 김상원 등과 함께 동인지(同人誌) 《시인부락》으로 활동하다가, 1941년 2월에 첫 시집 「화사집」을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42년 일제치하 시기에 서정주는 시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친일시를 썼다. 그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과 위안부 등 많은 시국을 맞아 그의 인생관 또한 변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관은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47년 <국화 옆에서>라는 대표작에서도 일제시기 후 변한 그의 인생관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는 최재서의 주선으로 '인문사'에 입사해 친일 어용 문학지인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일을 맡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는 1942년 7월 다츠시로 시즈오라는 창씨명으로 평론 「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1편의 친일작품들을 양산하였다.

서정주는 해방 후 1948년 4월에 선문사에서 두 번째 시집 「귀촉도」를 출간했다. 「귀촉도」는 해방 뒤에 쓴 시들도 있었지만, 해방 전 일제 말기 때 쓴 시들도 많았다.

그는 1951년 1·4후퇴 때 전주로 내려가 전주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국어 교사를 하였고, 우리 민족이 언제 영화를 누리 살았던가를 생각하다 그 시절이 신라라고 깨달은 그는 1952년부터 조선대학교 교수로 2년 반 동안 신라와 삼국사 관계의 역사책을 읽고 지내다 1960년 「신라초」를 출간했다. 뿐만 아니라 1968년 「동천」이라는 시집 또한 신라정신이 밀바탕이 되었다.

1953년 9월 휴전협정과 함께 그는 서울로 돌아갔고 교수 생활을 하다 1956년 출간한 「서정주 시선」으로 미국 아세아재단에서 주는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정주 시선」은 한국전쟁을 거쳤던 시기에 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기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많이 나타낸 작품이 실려 있다.

그는 1977년 한국 밖으로 눈을 돌려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한다. 그는 여행을 통해 시의 감동적 체험을 많이 겪어 보려 하였고, 1978년까지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집 「서으로 가는 달처럼」과 「미당 세계 방랑기」에서 그의 세계 방랑의 경험이 담겨있다.

서정주는 여행을 끝내고 서양에 대한 환멸감 끝에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룬 시를 쓰기로 하고, 1982년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란 시집을 쓰게 된다. 서정주는 이 여행 말고도 수차례 많은 여행을 갔는데 1990년 4개국의 여행길을 오른 그는 시집 「늙은 떠돌이의 시」를 내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낸 시들은 거의 해외여행을 통한 '떠돌이' 의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는 1997년 「80소년 떠돌이의 시」를 끝으로 여행에 대한 시를 써냈다.

2000년 그는 병원에서 별세하였지만, 그의 시들은 시대상에 나타난 아픔과 해방, 그리고 자유를 잘 나타낸 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김학동 외,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5, p.690~778
윤재웅, 『미당 서정주』, 태학사, 1998, p.10~14

5. 미당 서정주의 대표작품

인문학부 20161016 김원목

화사(花蛇)

서정주

사향 박하의 뒤편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둥아리나

꽃대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던 달변의 헛바닥이

소리 잃은 채 널름거리는 붉은 아 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물어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 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 방초人길

저놈의 뒤편을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石油(석유) 먹은 듯……石油(석유) 먹은 듯……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트라 피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은 입술이다……스며라! 배암.

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은 입술……스며라! 배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며 그 성격은 관능적이며 상징적이다. 그리고 자매시인 「대낮」에서처럼 직정언어와 원초적 이미지로 순라(純裸)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 꽃뱀은 꽃의 아름다움과 뱀의 징그러움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1연에서는 ‘아름다운 배암이면서 징그러운 몸을 가졌다’로, 2연에서는 ‘꽃대님과 달변의 헛바닥’으로 그 감정의 양가성을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는 증오가 나타나며 4연에서 다시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점점 꽃뱀을 갈망하게 된다. 마지막 연에서 나타나는 ‘우리 순네’의 고은 입술을 ‘배암’의 고은 입술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배암’의 입술을 통해 ‘순네’의 입술이 연상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암’은 관능적 상징물이라고 보인다.

귀촉도(歸蜀途)

서정주

눈물 아롱 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

신이나 삼어 줄걸 슬픈 사연의
울울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혀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 구비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아

이 시는 미당 서정주의 제2시집 《귀촉도》의 표제시로, 갈래는 자유시이며 서정시이다. 전통적, 상징적, 애상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 시는 이별한 임을 향한 정한과 슬픔을 깊이 있게 노래한 시이다.

1연은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이별을 노래한 부분이다. 여기서 화자는 임이 피리를 불고 갔다고 하고, 임이 가신 곳은 진달래 꽃비가 온다고 표현함으로써 비극적 사실을 미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2연에서 화자는 회한을 토로한다. 화자는 임에게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 ‘부질없는 머리털’을 은장도로 베어 육날 메투리의 신이나 삼아줄 것을 그랬다는 부분에서 화자를 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질없는’이라는 시어를 통해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연은 비극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친 밤하늘’, ‘목이 젖은 새’, ‘제 피에 취한 새’ 등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시의 ‘귀촉도’는 떠나간 임으로서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의 표상이며 동시에 임과 나를 연결해 주는 사랑의 촉매이다. 그리고 시의 주제인 이별한 임을 향한 정한(情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호영, 『서정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53-56, p.127-129
송하선, 『미당평전』, 푸른사상, 2008, p.204-206
이경철, 『미당 서정주 평전』, 은행나무, 2015, p.82-83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시』, 은행나무, 2015, p.85

6. 미당 서정주가 남긴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61029 남윤진

미당 서정주는 1942년 ‘다츠시로 시즈오’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여 평론 《시의 이야기 - 주로 국민 시가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친일 작품을 쓰기도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자 이승만을 기리는 이승만 전기를 썼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베트남 파병을 촉구하는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의 생일 축하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또 아직도 그의 정치적인 행적들에 대한 평가들이 분연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그가 현대 시 사상 최대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한 공적을 부인하려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가 장인의식을 지닌 뛰어난 시인으로서 50년 이상을 한국 현대시를 개척하기 위해 외국의 길을 걸어왔으며, 10여 권의 중요한 시집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미당의 작품만큼 질량으로 그 누구보다 우리를 매료하고 흐뭇한 무게를 우리에게 안겨 주는 시인이 드물다는 점에서 미당 서정주의 시는 그 자체로 깊은 의의가 있다.

『서정주론』(조연현)이 보여주듯이 그는 첫 시집 『화사집』부터 23세의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일찍 인류의 원죄의식을 접하면서 운명적인 업고를 예언하고 있었다. 23세의 어린 나이로 종이였다는 아버지의 굴욕과 자기를 길러 준 8할의 바람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운명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갔다>는 죄인과 천치에 스스로를 투사하여, 자기도 정확히 의식하지 못한 원죄의 포로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자기의 온 육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었던, 선형적이랄 수 있는 시인의 비범한 예지는 과히 우리의 경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어린 나이에 운명처럼 수락하지 않으면 안됐던 모든 고통과 업고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인 굴욕과 유량과 천치와 죄의 의식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그 후 그의 모든 시집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변주이면서 동시에 그 때마다 각기 미당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개성 있는 세계로 엮어져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시편들의 질량 못지않게 한국어의 세련된 감각에 기여한 그의 심미주의다. 그리하여 <아무 말이나 붙들고 놀리면 그대로 시가 되는 경지에 이른 미당은 정히 부족방언의 요술사다>라고 할 만하다. <매체를 손끝에 익히고 익혀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장인의 솜씨>가 낳은 것이 그의 시다.

물론 그의 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시가 비세속적이고 관념의 유희 아니면 반역사적 발상이라고 비판되기도 하였다. 역사를 살면서 한국 근대사의 영욕에서 인간 서정주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서정주가 없는 한국시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현대시사에 남기고 간 의의는 매우 크다. <그저 소같이 미련하게는 고지식하게 이어서 왔구나.>라거나 <시를 쓰는 데 있어서만은 진실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시인 자신의 솔회들은 그가 시를 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왔고 솔직 하려 노력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누리미디어, 2002

박철희, 『서정주』,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7. 미당 서정주에 관한 유적지

국어국문학과 20151120 우정민

1) 선운사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에 위치해 있다. 백제 27대 위덕왕 24년(577) 검단선사가 신라 진흥왕의 시주를 얻어 개창했다고 전해진다. 미당 서정주가 대어섯 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서정주가 생전에 무척 애정을 가졌던 절이다. 선운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정주의 흔적 중 하나가 '선운사 동구'이다. '선운사 동구'는 서정주가 1968년 선운사의 동백꽃을 배경으로 지은 시로, 전라도 방언과 구술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운사 동구'에는 한 일화가 전해진다. 서정주가 옛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막걸리 집을 찾았지만 10년이나 지나 있었고, 주모는 전쟁에 희생되었으며, 선운사 동구는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선운사 동구>

서정주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니다.



2) 미당 시 문학관, 생가

미당 시 문학관은 미당 서정주의 고향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먼저 서정주는 1915년 5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기념관은 미당의 생가와 묘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그의 사후 다음 해인 2001년 11월 3일 개관하였다. 이 날은 미당의 중앙고보 재학시절 광주학생의거 지원 시위 사건(1929년, 1930년 2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참고문헌》

김효형, 『답사여행의 길잡이 1 - 전북』,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4

박호영, 『서정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p.13~17

선운사 사진 참고자료 - 선운사 <http://www.seonunsa.org/>

미당 시 문학관 사진 참고자료 -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8. 미당 서정주의 답사지(전북 고창) 관련 작품과 분석

국어국문학과 201511113 송예지

- 침향(沈香)

침향(沈香)을 만드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담가 넣어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담긴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짧아야 2-3백 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뚤한다 합니다. 천년쯤은 잠긴 것이 냄새가 더 좋습지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드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늑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침향>은 서정주의 제6시집 《질마재 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시다. 1975년 간행된 이 시집 제목의 ‘질마재’는 시인의 출생지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마을 선운리의 속칭이다. 그 모양이 길마(수레를 끌 때 말이나 소 등에 안장같이 엮는 제구로 ‘질마’는 구개음화가 안 된 상태)와 같은 형국으로 된 고개와 같다하여 ‘질마재’로 부르는 것이다.

‘침향(沈香)’은 오랜 세월 개펄에 묻어서 수지(樹脂)가 없는 부분을 썩힌 다음 수지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만을 얻거나 나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수지를 수집하여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향은 예로부터 최고의 향기를 발산하는 귀한 향으로 여겼다.

이 시에서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즉 물과 바다가 만나고 그곳에 참나무를 넣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선대와 후대가 만난다는 것은 시간과 생명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생과 반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과 생명의 사이클인 것이다. 미당은 바로 그 지점으로 질마재에 있는 검당포 포구의 뺨을 끌어 들인다. 이 시에서 개펄(뺨)의 의미는 중요하다. 개펄은 획일화된 시·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가 숙명적으로 제한받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영원한 시공간이 존재하는 개펄은 우리 삶의 기초이다. 미당은 <침향>에서 그러한 시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

시 <침향>의 배경이 되었음직한 질마재 앞 검당포 포구에서는 실제로 이곳의 물이 빠지면 이곳 사람들은 뺨에 참나무를 묻었다고 한다. 지금은 10km의 해안선과 접하여 1200여 Ha에 이르는 광활한 하전개펄로 펼쳐져 있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로 선정된 독특한 갯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인실, 「수천 년을 소통하는, '바짝 가까이 그리운' - 서정주의 시 <침향>과 고창 질마재의 개펄」, 열린전북, 2010, p.78-82

4조 - 혼불 (최명희)

1. 최명희와 『혼불』

국어국문학과 20121103 권순영

최명희는 1947년 10월 10일 전주에서 석영 최씨 성무와 양천 허씨 묘순 사이에서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최명희는 전북대 국어국문학과를 1972년에 졸업하고 이듬해부터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했다.

그녀는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쓰러지는 빛’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등단 직후부터 『혼불』을 쓰기시작 하여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공모 혼불 제 1부 『흔들리는 바람』이 당선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1980년부터 오로지 『혼불』 한 작품에만 매달렸다.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는 작가적 신념으로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도 날밤을 새면서 한땀 한땀 원고지를 채워 나갔다고 한다.

그녀는 혼불 10권을 발간하기 4개월 전인 1996년 8월 난소암 발병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집필에만 몰두하였다. 그렇게 대하장편 소설 『혼불』은 작가인 최명희가 17년간의 집필 끝에 이뤄내었다. 그리고 끝내 그녀는 1998년 12월 11일 5시경 가족들과 문인들의 슬픔 속에 지병인 난소암으로 별세했다.

최명희는 1997년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5권 분량의 『혼불』 후속이야기 -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격동기를 겪게 될 주인공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더 남아있다고 했지만, 최명희가 1998년 별세 하면서 『혼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혼불』은 대략 1936년에서부터 1943년경까지의 일제감정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남원의 양반집안인 매안 이씨의 문종3대와 고리배미의 상민들, 거멍굴의 천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을 서사화 하고 있다. 무너져 가는 종가를 지키고자하는 청암부인 - 율촌댁 - 효원에 이르는 3대 종부들과 거멍굴에 살면서 목숨을 연명해가는 천민들, 고리봉 언저리 민촌에 모여 사는 상민들의 치열한 삶의 숨결들이 작품에 세세하게 녹아있다. 특히 『혼불』은 인물중심의 이야기 외에도 우리 선조의 세시풍속, 관혼상제, 복식, 음식 등 전통적이고 민속학적인 기록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아름답고 섬세한 모국어로 생생하게 복원해 내고 있다.

작가 최명희가

“가장 한국적인 말을 씨앗으로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우리식 고유의 이야기 형태를 살리면서 서구 전래품이 아닌 이 땅의 서술 방식을 소설로 형상화 하여, 기승전결의 줄거리가 아니라 낱말이 단위 자체로서도 충분히 독립된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각 장, 각 문장, 각 낱말을 나는 쓰고 싶었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혼불』은 풍부한 어휘묘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민속과 풍속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생동감 있게 묘사 하고 기술한 ‘민속학적 서사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희진, 「혼불의 민속 모티브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p.1-12

김용악, 「최명희 <혼불>의 배경 및 인물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1-8

2. 『혼불』의 공간적 배경

인문학부 20161092 전소민

혼불에서 중심이 되는 배경은 ‘매안 이씨 양반촌 이야기’, ‘고리배미의 민촌 이야기’, ‘거멍굴 천민촌’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 매안 마을은 명당자리에 위치해 있어 자손만대 복을 누리는 반촌의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매안 반촌 안에 사는 양반들은 인품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으로 규정한다. 허나 그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인 핏줄 잇기와, 체면위주의 허물 같은 겉데기 삶에 형상일 뿐, 인간의 내재된 행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공간이 묘사된 부분에서 하늘을 향한 용마루는 양반들이 체면만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 상징해주고 있다. 이 양반들은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양반들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가면을 씌어 인간다운 삶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다.

두 번째 고리배미 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민이다. 고리배미는 사방을 에워싼 크고 작은 외들의 물결과,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길이 뻗어 오다가 퍼지면서 둥그러미를 이룬 형태의 마을이다. 고리배미의 상민들은 양반들처럼 품위와 체면을 굳이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다. 또한 거멍굴 천민처럼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리배미 사람들은 양반들과도 충돌 없이 잘 지내게 된다.

고리배미 민촌은 갈등요소가 없어 세 가지 배경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다. 허나 고리배미는 조선시대 상민들의 삶의 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상민촌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거멍굴은 무산아래 ‘근심바위’가 상징하듯 천민들의 한이 모인 공간이다. 거멍굴은 근심바위 옆에 위치해 있으며, 납작한 초가집 마을이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사람들과 모여 산다. 그리고 계급이 사라지는 삶을 소망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수궁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건 모반을 하게 된다. 춘복이의 양반과의 ‘피섞기’는 자신들의 신분을 바꾸기 위한 사투이며,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변화해 보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혼불’에서의 배경은 위치상으로 맨 위쪽이 양반, 그 아래에는 고리배미 상민들과 거멍굴의 천민들이 매안 양반네들의 땅을 소작하며, 늘 매안을 올려다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부분의 공간 구조는 당시 반상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위에서 전개 될 계급 구조적 갈등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 또한 작용한다.

《참고문헌》

박경화, 「<혼불> 배경 및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6-14

혼불 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honbul.go.kr/03h_02_1.htm

1) 둔덕리 전주이씨(全州李氏) 종가 (이웅재고가 -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2호)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이 건물은 마을의 향조이며 건물 소유주의 16대 선조인 춘성정 이담손이 조선 연산군 6년(1500)경에 건립한 이래 수차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고가이다.

장방형의 대지에 동남향하여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좌우 앞쪽으로 행랑을 덧대어 전체적으로 ㄷ자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일자형 건물로 고종 원년(1864)에 상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문채는 5칸 규모로 솟을대문이며 여기에 고종 7년(1870)에 증통정대부리조참의 이문에게 내린 효자정문의 현판이 걸려있다.

※ 소설 『혼불』에 나오는 매안 이씨의 종가집의 실제 모델은 둔덕리에 있는 전주이씨 종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리배미 홍송숲과 비오리주막



「혼불」 자료 - 「혼불」 제 3권 284쪽

“민촌에 아깝다.” 고 이 앞을 지나던 선비 한 사람이 탄식을 하였다는 적송의 무리는, 실히 몇 백년생은 뒹직하였다. 이런 나무라면 단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위용과 솟구치는 기상에 귀품(貴品)이, 잡목 우거진 산 열 봉우리를 제압하고도 남을 것인데, 놀라운 일이었다.

3) 근심바위



「혼불」 자료 - 「혼불」 3권 246쪽

거멍굴은, 정거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도와 이만큼한 거리에 나란히 길이 난 산 밑을 따라 한 식경쯤 걸으면 보이는, 근심바위 옆, 몇 가호 웅색한 마을이다. 그저 다박솔이나 옷나무, 잡목들이 생긴 대로 우거진 나직나직한 동산들로 이어지던 능선의 풍경이 문득 출렁 높아지는가 싶은 무산(巫山) 봉우리 아래 자리 잡은 거멍굴은, 소쿠리 하나 안에 들만 치 도래도래 모여 앉은 납작한 초가집들의 마을이다.

《참고문헌》
혼불 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honbul.go.kr/03h_02_1.htm

3. 『혼불』의 대표 여성 인물들의 성격 비교

국어국문학과 20151129 장은영

『혼불』은 10권에 달하는 소설인 만큼 여러 유형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투쟁적, 혹은 순응적인 인물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대표적인 여성 인물들인 청암부인, 인월댁, 효원. 이 세 명의 인물은 이들 각각의 유형별로 공통점이 있다.

청암부인과 효원은 투쟁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암부인은 어린 나이에 청상이 되어 소복을 입은 채 신행을 왔다. 그녀는 보통 여자들과는 다르게 다부진 몸을 갖고 있다고 서술된다. 그녀는 아직 자손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종부라는 위치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극복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종가의 존속을 위해 동서 이월댁의 장남을 양자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청암부인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종가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한 가문의 종부’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 소설 속에 개척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쟁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효원은 강모와 혼례를 치르나, 혼례 당일의 날씨는 쾌청한 날씨가 아니라고 소설에서 언급된다. 이는 강모와 혼례를 치른 효원의 삶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 효원 역시 청암부인과 같이 장대한 골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몸에서 풍겨 나오는 위엄에 강모는 첫날밤부터 그녀에게 두려움을 품었고, 또한 예전에 좋은 감정을 나누던 제 사촌 여동생인 강실을 잊지 못해 효원을 안지 않는다. 이 때 효원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내 이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 라고 독백하며 자신이 당한 수모에 분노한다. 그리고 후에 겁탈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일방적인 강모와 단 하루 합방으로 아이를 배게 되고, 아들 철재를 낳아 종가의 대를 잇는 종부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효원은 놀라운 정신력으로 자신에게 닥친 수치스러운 현실을 당당하게 이겨내었고, 이런 면을 보아 투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인월댁은 효원과 상황 면에서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인월댁도 어린 나이에 혼례를 치루지만 남편인 기서에게 첫날밤부터 소박을 맞게 된다. 그 이후로 평생을 매안에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인물이다. 인월댁은 첫날밤에 소박을 맞은 이후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닌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아,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한 수모에도 분노했던 효원과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십삼 년을 살다 그 해 봄 방죽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패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청암 부인이 보내준 베틀에 앉아서 이십년 이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낸다. 이런 그녀의 삶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사게 된다.

이렇게 세 여성인물들은 남편에게 소박을 맞는 등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성격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혼불’에서는 이 청암부인과 효원처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인물도 있는 한편, 인월댁처럼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버텨가는 인물도 있다.

《참고문헌》

김복순 외,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p.169-184

박경화, 「<혼불> 배경 및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22-29

4. 『혼불』의 여성관 (절대적 가부장적 세계)

국어국문학과 20151131 정현아

『혼불』은 청암부인을 비롯한 인월댁, 효원 등의 인물을 통해, 절대적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엄격함으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때 『혼불』속의 사회를 절대적 가부장적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신분적 이동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점과 양반과 상민이 거주하는 곳이 엄격히 구분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혼불』의 지배적 의식은 유교적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의식이다. 인물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인물이 그렇다.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인물들의 유교적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암부인을 대표로 한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효원이나 인월댁은 스스로가 유교적 가부장적 의식에 의해서 희생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절제와 엄격함을 유지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월댁, 효원이, 청암부인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남편의 부재이다. 인월댁은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첫날밤에 소박을 맞았다. 역마살을 가진 남편은 결혼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인월댁에게 떠난다는 말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청상과부와 같은 삶을 살던 인월댁은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삼 년째 되던 해 저수지에 몸을 던진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 후 인월댁은 몇 십년을 베틀에 몸을 싣고 그림자 같은 불행한 일생을 보낸다. 이는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효원이 또한 가부장 제도의 피해자다. 남편 강모가 효원의 덩치에 겁먹고, 종갓집 손자로서의 강압을 느껴 효원을 떠난다. 이에 효원은 평생 독수공방을 하게 된다. 강모와의 하룻밤 스친 인연으로 낳은 아들을 증손자로서 손색없이 키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남편의 부재로 자신의 뿌리가 잘렸다는 생각을 가진 효원은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위의 두 사람과 반대로 청암부인은 남편의 부재에 대한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죽을 경우 몇 번의 결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반의 여자의 경우 평생 수절을 감수해야한다. 청암부인의 남편은 혼례를 치르고 청암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한 사람의 아낙으로서 살지 못하는 슬픔을 뒤로 한 채 청암부인은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일생을 살았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것에 마음을 굳히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지 않게 노력했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신분인 양반, 그중에서도 남자만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 양반신분의 여성들은 행동을 조심하고 도를 몸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억제하고 살아야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작품 속 등장하는 여성들은 독수공방, 남편의 부재, 과부 등 암담한 삶을 살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등장하는 여성들이 조금 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었다면 그녀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거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최혜실,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269-274

5. 『혼불』 속 갈등해결양상

국어국문학과 20121119 박정현

『혼불』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대 초, 갈등은 대표적으로 신분계급에 연관되어있다. 양반의 힘에 억압받는 하층민들의 갈등이 소설에는 주된 갈등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안쓰러운 상황을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자신의 운명을 순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순네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매안 원똥 양반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청암부인이 실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기르던 호박 중에 제일 크고 좋은 것을 따다 주는 것을 보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호의가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왔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양반 사회에 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자광의 이야기를 나누는 하층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이러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에게 대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층민들은 전생에 지은 죄업을 씻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저 죄업을 다 씻고 다음 생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자 바라며 억압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순응과 체념의 삶이 이들의 전형적인 삶이다.

“나라가 망해부러도 양반은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 종은 종이며, 무단히 녀의 불에 개 잡을라고말어. 그러다가 매급시 지 머리크락이나 꼬실르제.”

둘째로 일방적인 차별에서 오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춘복이와 옹구네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양반의 힘을 알아 양반의 면전이 아닌 하층민들끼리 모여 앉은 자리에서 불만을 토할 뿐이다.

“아앗따아, 아제는 징그럽도 안혀요? 그만치 참고 살았으면 원 쇠심줄 창사라도 썩어 부리고, 그 창사가 구리라도 녹아 부렸겄소. 무신 노무 한 시상을 참을라고 산다요?”

하지만 강모와 강실의 근친상간이 있던 뒤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패륜이라는 윤리적 결함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매안 이씨 양반 사회는 더 이상 하층민들을 억압할 수 없다. 양반으로써의 위엄을 잃은 것이다. 이로써 하층민들에게는 두렵기만 하던 양반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혼불』에서는 양반의 몰락이 곧 하층민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분사회가 아닌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하층민들은 서로 갈등구조를 구성한다. 이 역시 현재에도 비슷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하층민들의 갈등양상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집어내어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보은, 「혼불의 갈등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48-56

이윤정, 「최명희 혼불의 인물유형 연구 -욕망의 발현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 2002, p.12-19

6. 『혼불』의 전라북도 방언

인문학부 20161065 이단비

혼불이란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전라북도 방언이다.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작가는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전라북도 남원의 매안마을을 배경으로 한 『혼불』에서는 호남지역의 방언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사람들끼리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친근감이나 향토애를 느끼게 한다.

첫 번째로는 전라도 방언에서 자주 생략되는 “-으”와 “-에”, 표준어 관형격조사인 “-의”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댁으 천정집도 양반은 양반잉갑드만”

“절간에 불상도 꼬집고 가 부렸다는디?”

“제엔장철 놈의 시상. … 먼 놈의 시상이 이렇가아.”

두 번째로는 표준어 주체높임법 선어말어미 “-시-”와 전라북도에서 쓰이는 높임법 “-거-”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껏 아무 일 없이 몇 백 년을 살아왔는데, 대대로 조상께서도 안하신 일을 어머니께서 왜 시작하려 하십니까? … 그것이 무슨 말이신가요? … 아니올시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도 못 들어 뵈겼소? 아이고”

세 번째로는 “망월이야아 마앙워얼이야아.”에서 “망울이야 마앙우울이야.”로 바꾼 것에 있다. 작가는 남원방언의 음장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 남원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기 위해 수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정확하고 사실적인 남원의 방언을 구사하려던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혼불』에서는 이중적인 구조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매안마을의 양반집단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천민집단은 방언을 사용하는 점에서 계층별로 이중적인 구조가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양반 집단이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반집단의 윗세대인 청암부인과 이기채 등은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습득하여 표준어의 발화 속에 방언의 어휘가 나타나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모와 강태 등 아랫세대는 엄격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 둘 다 『혼불』에서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사용한 작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저는 사실 두 말을 다 사랑해요. 저는 대한민국 표준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마을의 사투리를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이 두 말을 어떻게 이 글 속에 제대로 잘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라고 답했다. 이렇듯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며 집필했던 작가의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혼불』인 것이다.

《참고문헌》

장일구, 「호남방언과 서사문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윤석민,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 국어국문학회, 2006

김진영, 「최명희 혼불에 나타난 전라도 방언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14

정미선, 「혼불의 서사적 텍스트성의 중층」, 중앙어문학회, 2015

7. 『혼불』의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61022 김진서

최명희는 역사의 ‘혼불’ 즉,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아픈 일제강점기에 ‘혼불’이 살아있는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피맺힌 한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혼불』은 사건,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서사시의 무게감과 판소리의 흥이 있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현지답사를 통해 꼼꼼한 문체로 숨겨진 우리말을 찾아 놓았다. 우리 정신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작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천왕 신앙을 쓰기 위해 송광사, 선운사, 능가사 등 수많은 사찰들을 헤맸고, 연날리기 풍속을 재현하기 위해 손수 수십 개의 연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소설은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백과사전으로 읽힌다. 소설 첫 장의 ‘청사초롱’에는 전통혼례 장면이, ‘사월령’의 모내기 대목에는 두레풍습이 현장감 있게 그려진다. 이렇듯

『혼불』에는 조상들의 풍속사가 생생하게 재현돼 있다. 그래서 ‘대하예술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혼불』에는 양반사회의 기품을 지키려는 주인공들의 노력과, 평민과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럽게 살면서도 민족혼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던 민중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다. 최명희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산천초목, 생활습관, 사회제도, 촌락구조, 역사, 세시풍속, 관혼상제, 통과 의례 그리고 주거형태, 복장, 음식, 가구 등 언어를 그것들을 행하고 치르고 감당했던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이 살아나도록 애절하게 그려놓았다.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민족사가 되고 나아가 백과사전이 됨으로써 서사문학의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혼불』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한 안목으로 형상화해 놓았다. 그 핵심적인 문제의 첫째는 공동체 중심적인 삶의 패턴과 개인 중심적인 삶의 패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는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이강모의 오뇌에 찬 방황에 의해 섬세하게 형상화된다. 둘째는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정당성을 지닌 질서로 믿는 태도와 그것을 부정하고 깨뜨리려는 태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는 소설 속 옹구네와 춘복의 반항적인 행동, 강태의 논리를 통해 제시된다. 셋째는 우리의 국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정통성마저 말살하려는 외세의 압력과 거기에 맞서는 의지 사이의 갈등이다. 이는 창씨개명을 둘러싼 일련의 긴장된 사건전개에 의해 집중 조명을 받는다.

최명희는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이 대대로 전승해 온, 그러나 지금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풍속의 세계를 최대한 정밀하게, 아름답게 복원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차츰 망각해 가고 있다는 현실에 저항하는 역할과 소설 장르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역할을 수행해 내었다.

《참고문헌》

김용악, 「최명희 [혼불]의 배경 및 인물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p.8-15

8. 『혼불』의 배경

● 구 서도역

구 서도역은 소설 『혼불』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주요 배경 중의 하나다. 구 서도역은 『혼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혼불』 첫 권, ‘심정이 연두로 물들은 들’ (56쪽)에 나오는 ‘늦바우’ 설명대목에서 소위 ‘기차’라는 낱말이 처음으로 들먹여진 뒤에 구 서도역은 ‘정거장’ 혹은 ‘매안역’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달고 『혼불』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매안마을 끝 아랫물에 이르러, 치마폭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논을 가르며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만한 시간이면 달는 정거장, 서도역은 효원이 대실에서 매안으로 신행 올 때 기차에서 내리던 곳이며 강모가 전주로 학교 다니면서 이용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 매화낙지



“매화낙지?” “매화 매(梅), 꽃 화(花), 떨어질 락(落), 따 지(地), 그렇게 쓰지.” “꽃이 떨어지는데 무엇이 좋은가요?” “이 사람아, 꽃은 지라고 피는 것이라네. 꽃이 져야 열매가 열지. 안 그런가? 내 강아지.” 청암부인은 어린 강모를 무릎에 올려 앉히며 궁둥이를 토닥여 주었다. 토닥이는 소리가 강모의 가슴을 쿵쿵 울리게 하였다. 그날 밤, 강모는 그 아득한 들녘 먼 곳까지 하염없이 하염없이 매화 꽃잎이 날리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온 마을의 지붕과 언덕, 그리고 하늘을 자욱하게 덮으며 눈처럼 날리었다. - 『혼불』 제1권58쪽

→매화낙지의 원형 사매면 상신리. 뒤편 계룡산에서 매화가 날리면 떨어지는 곳이 이 동네 어귀라는 것이다.

● 삼계석문과 구로정



“가세 가세 그리로 가세. 이곳 저곳 다 버리고, 생장지 매안방의 명승지를 찾아가세. 소백산맥 곧은 줄기 한 가닥을 받아 안아 동으로는 계룡산, 서쪽에는 노적봉, 남면에는 밤재 울치 어깨 곁고 우뚝하며, 물빛 맑은 매안천과 서도천 울천내가 서류하다 합수하는 삼계석문 빼어남이 그 어디만 못 하리오.” - 『혼불』 제 8권 315쪽

→둔덕리 에서 강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방죽골이 나오고 방죽골 모퉁이를 돌아서 더 들어가면 임실군 삼계면 미산 후면이 나온다. 그 후면의 산 중턱에 ‘삼계석문’이라고 쓴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아래 구로정이 있다.

※ 출처 : 혼불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honbul.go.kr/03h_02_1.htm)

5조 - 동학농민운동과 문학

1.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41116 김희인

나라 안의 봉건적 탄압과 수탈, 나라 밖에서는 침략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던 19세기 말의 조선은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내외의 위기상황에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제우에 의해 동학이 창도되었다. 동학은 조선왕조의 봉건적 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의 침략에 대한 불안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절박감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농민대중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여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분산적이고 일시적인 농민대중의 저항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결국에는 전국적인 혁명으로 성숙시켜 나간 것이다.

동학의 개혁사상과 평등사상은 농민들에게 환영받으며 반봉건의 투쟁의식을 고취시켰다. 동학은 인내천의 평등사상을 기초로 이념과 조직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조 농민운동에 에너지를 부여했으며, 그로 인해 깨우친 농민들은 수탈과 탄압에 대해 반발하였고 그 결과 1875년 울산, 1877년 문경, 전주 등 각지에서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봉기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과 맥을 잇고 있으며 그러한 농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반봉건과 반침략의 역량을 표출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동학농민운동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 동학농민운동에 의해 한국민족주의는 민중에 의한 민족주의운동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동학은 1860년 창시된 후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민족주의 과제를 의식한 정치적이데올로기로 변모됨으로써 1984년 농민봉기의 원동력이 되었다. 폐정개혁 27개조 요구는 농민운동의 이념적 발전이었고 그 내용은 농민운동의 이념이 실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농본주의 조선조 경제체제의 핵심인 토지문제에서 농민은 국가와 개혁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민족역량확대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의 확립은 농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며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한국민족주의 역사상, 그리고 조선조 토지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대중이 표방했던 전근대적인 봉건체제의 탄압과 수탈에 저항하는 반봉건의 민주주의와, 일본이나 구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외세의 민족주의는 근대화운동을 지탱하는 양대 지주이다. 농민이 주체가 되어 근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변화를 이끄는 동력을 바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혜승,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 「동학농민운동의 민족주의적 평가에 기초한 ‘한국민족주의의 민중화’에 대한 검토」,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 p.169
문성호, 『정보정치연구2』, 「전봉준의 민중정치사상과 체제구상」, 한국정치정보학회, 1999, p.241-249
이상식, 『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p.3-30

2. 전봉준의 동학과 사상

인문학부 20161114 홍예지

전봉준은 집안이 가난하여 안정된 생업 없이 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크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멸족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다가 모진 곤장을 맞고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이는 뒷날 그가 사회개혁의 큰 뜻을 품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동학이 경천수심(마음을 바로 지켜 하늘을 공경한다)의 도(道)로,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상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보국안민) 의식을 가지고 1890년 경, 그의 나이 35세쯤에 동학에 입교한다. 그리고 입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동학의 제 2대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접주로 임명받았다.

전봉준은 동학을 사회 개혁의 지도 원리로 인식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동학과 농민을 결합시킴으로써 농민운동을 지도해 나갔다. 그러나 그의 정치사상을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 단지 그가 농민전쟁의 와중에 장수로서 쓴 기록들이 주로 남아있을 뿐이어서, 지금까지 전봉준은 혁명가, 장수와 같은 입장으로만 얘기되어왔다. 하지만 전봉준의 정치사상에는 18~19세기의 근대적 민중들의 사상과 동학사상이 접맥되어있다. 그가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경장을 통해 근대를 여는 실마리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봉준이 가졌던 민중사상가로서의 면모는 분명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전봉준의 정치사상 외에도, 그의 인간관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농민군 4대 행동강령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특히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 라는 강령은 일반 백성들을 생산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조세(국세, 지방세)를 내는 사람 정도로 여기던 기존의 봉건적 입장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탈 봉건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봉준도 ‘삼강오륜’의 유교도덕을 완전히 탈피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봉건 지배계층에 대하여 무장투쟁을 결행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원이라는 타협적 방법을 버리지 못했고, 앞선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유격전술을 전주가 조선 왕가의 본관지였다는 이유로 전주 입성 후에는 충분히 전개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이러한 봉건적 사상의 잔재는 그의 지도하에 있던 농민군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반영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일들은 반권력 의식에 입각하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멸하자(진멸권기)’라는 구호를 가지고 무장봉기한 농민군의 전투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고, 지위와 권세의 정점에 서 있는 이씨 왕가에 대한 유교적 숭배 의식을 농민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이었다. 이처럼 전봉준의 반봉건적의식 불철저성은 그를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극복), 즉 이씨 왕조 타도의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참고문헌》

노태구 역음,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p.125, p.127~128

문성호, 『정치정보연구2』, 「전봉준의 민중정치사상과 체제구상」, 한국정치정보학회, 1999, p.237, p.242

3.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국어국문학과 20111113 김주형

1894년 1월,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의 탄압으로 민란이 일어난다. 농민들은 동학 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삼아 봉기했는데, 조병갑이 파직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오히려 동학교도들을 탄압하는 등 악행을 일삼자 농민들은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다. 3월 25일, 고부 근처 여러 고을에서 온 농민들이 백산으로 모였다. 1천여 명의 동학 농민군은 순식간에 부안 관아를 점령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라 감영에서 별초군 250명과 보부상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냈지만, 동학 농민군은 쉽게 승리하고 정읍까지 점령했다. 농민군의 승전 소식이 퍼지면서 동학 농민군의 세력은 점점 커져 갔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진 정부는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삼고 장위영병 800여 명을 보냈고 이어 증원군 800여 명을 투입했다. 이후 홍계훈 부대와 동학 농민군이 장성 황룡촌에서 만나 접전을 벌였다. 높은 사기와 다양한 전술로 중앙군마저 무너뜨린 동학 농민군은 곧바로 전주성으로 향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전라 감사 김문현은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 번 싸우는 척하다가 곧바로 줄행랑을 쳤다.

4월 27일,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시켰다. 뒤이어 도착한 관군은 전주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채비를 했다.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조선에 2천 500여 명의 군대를 보냈다. 청나라가 텐진조약에 따라 조선에 파병한 사실을 일본에 알리자 이틀 뒤, 일본에서도 도합 7천여 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했다. 두 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은 크게 놀랐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동학 농민군은 관군과 협상하여 농민군이 요청하는 폐정 개혁안 12개조 내용을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전주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화약을 맺었다.

이후 청일 전쟁이 일어난다. 이 때,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삼례에서 출발해 논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 농민군과 합쳤다. 그들은 더 이상 농민군이 아닌, 의병이었다. 그러자 일본은 재빨리 2천여 명의 군대를 보내고 조선 정부를 압박해 3천여 명의 관군을 동원했다. 먼저 공주성을 점령한 일본군과 관군은 뒤이어 공주에 도착한 농민군과 우금치에서 맞닥뜨렸다.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의 주력 부대는 40~50회에 걸쳐 끈질기게 맞섰지만 기관총 등의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당할 수 없었고,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후퇴했다.

비록 우금치 전투에서 주력 부대가 무너졌지만 동학농민군은 청주에서 김개남 부대, 충주에서 손병희 부대가 전투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싸웠다. 그러나 관군과 합세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결국 모두 패배하고 말았고, 얼마 후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이 순창 피노리에서 관군에게 잡히면서 1년 동안 숨 가쁘게 이어 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다.

《참고문헌》

박광일·최태성,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 씨앤아이북스, 2012, p.130-136

4. 윤백남 『회천기』

인문학부 20161072 이슬훈

윤백남의 『회천기』는 동학농민운동을 제재로 한 장편 역사소설로 그 사건의 시초에서 전봉준의 최후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해방 후 비교적 일찍 발표되어 그 후 이 계열을 작품을 쓴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후 이 방면의 중요한 장편소설만 30여 편이 넘는데 대부분 이 작품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해방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동학농민운동의 전모를 대체로 사실적, 객관적으로 전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존 인물이 아닌 옥매와 곽도령, 황노인 등 허구적 요소를 추가해 소설적 흥미를 더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데 소홀함이 없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의 핵심인 반외세 민족해방의식과 반계급 사회해방의식 그리고 반봉건 민주화의식을 어느 정도 작품화했다고 할 수 있다.

윤백남은 『회천기』를 집필하면서 ‘인간 전봉준’을 그리려 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봉준은 관군에 체포되어 41세로 처형당했지만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초인적, 전설적, 영웅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그런 인물이 아닌 보다 인간적인 인물로 소설화 시켰다. 소설 속 전봉준은 보통 인간보다 의지가 강하거나 다소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일 뿐이다. 영웅도 초인도 아니며 법술을 터득했거나 신출귀몰하는 재주나 초인적 능력의 소유자는 더더욱 아니다. 전봉준에 대한 신격화, 영웅화의 소문을 오히려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전봉준 외에 중요한 인물로 앞서 소개한 옥매라는 여성도 등장하는데 탁월한 재질과 능력이 있지만 옥매 역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전봉준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려한 것도 아니다. 인간적임을 강조할 뿐이다. 이렇게 윤백남이 전봉준의 초인적, 영웅적인 면을 외면한 이유는 그도 한계를 지닌 인간이므로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보통 인간이기에 불리한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이 소설의 핵심은 전봉준의 거사 실패의 원인을 탐색하여 해방공간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에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국가의 혼란과 위기는 초인이나 영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녀노소 상하가 융화 단결해야만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해방 후 민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어떤 인물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해서도 안 되겠고, 국가와 민족이 분열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값진 교훈을 암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근, 『반교어문연구 제28집』, 「동학농민운동 제재 역사소설 연구-윤백남의 역사소설 회천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2010

김선풍 외 2명,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4

5. 송기숙 『녹두장군』

인문학부 20161045 박진경

소설가 송기숙은 반제·반봉건의 민족사적 가치를 문학적으로 가장 올곧게 형상화했다. 송기숙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문학의 책무를 강조하는 소설가로 1966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첫 소설 『대리복무』부터 『오월의미소』 등 여러 작품에서 민중들의 강한 생명력과 저항적인 현실의식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송기숙의 『녹두장군』은 1994년 완간 발표되었는데 집필기간은 10년을 훌쩍 넘는다. 송기숙은 집필 과정에서 문헌이나 다른 자료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에 도달하면 곧 현장에 달려가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거나 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현장을 매개로 그 해결책을 찾아 소설에 제시할 만큼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동학과 농민전쟁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 화약과 농민군의 문제, 전봉준의 신분과 가계 등의 세부적인 문제를 현장 답사 후에 그 실마리를 찾아내 소설 속에 형상화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기숙은 작품의 현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그가 사용한 민중언어 또한 당대를 살았던 민중들의 의식과 이념의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 시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에 힘썼다.

그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시대상황뿐만이 아니다. 『녹두장군』은 당대의 반제 반봉건의 문제를 온 몸으로 느끼고 실천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농민들의 현실적 시각을 제대로 반영해내고 있다. 당대의 문제적 존재들인 살아있는 농민들을 앞세워 농민의 고민과 고통, 현실적 문제해결 의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현실적 시각은 돋보인다.

송기숙이 책의 제목을 ‘동학농민전쟁’이나 ‘전봉준’으로 하지 않고 민중들이 지어서 불렀던 호칭인 ‘녹두장군’이라고 정한 것은 농민들이 이미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봉기 준비를 해 왔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고부 민란 이전에 농민들은 이미 농업생산력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단 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묶어 제대로 분출시켜 줄 지도자로 전봉준을 선택하였고, 그를 ‘동학농민전쟁’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 참요나 태몽 이야기를 만들어 구전시킨다. 작가는 훌륭한 지도자를 알아보았던 민중들의 해안과 이러한 민중들의 뜻에 따라 준 전봉준의 뉘뉘이를 통해서 고부 민란 이전의 민중들에 정치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은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동학농민전쟁의 소설화 전략 비교 연구- 송기숙의 <녹두장군>과 한승원의 <동학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p.382-389

최현주, 『남도문화연구 제24권』, 「송기숙 소설의 민중의식 고찰」, 순천대학교남도문화연구소, 2013, p. 266-273

6. 박태원 『갯오농민전쟁』

인문학부 20161102 채민영

박태원의 『갯오농민전쟁』은 우리나라 근대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갯오농민전쟁을 소재로 하여 당대의 사회계급 모순과 치열한 인민항쟁 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기초하여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양반이면서 양반이지 못했던 사람들, 평민이면서도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풀어가며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우리’라는 포괄적인 투쟁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다.

소설의 제1부는 주인공 오상민의 일가를 비롯한 고부 양교농민들이 군수로 내려온 조병갑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봉건적 압제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가난한 백성들이 압제자들에 반대하여 드디어 폭동에 궤기한다.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폭동으로 시작된 제2부는 전국을 뒤흔드는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되는 주인공 오상민과 전봉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농민군이 백산전투와 황토현 전투에 이어 장성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단숨에 함락하고 당당히 입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장편역사 소설의 마지막인 제3부는 전국 각지에 급속히 파급되는 농민전쟁에 질겁한 왕 고종이 외국에 청병, 흉모를 벌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일본 침략자들의 조선 출병과 전주회의, 집강소 설치와 ‘폐정개혁’, 위기에 처한 국권을 바로잡기 위한 농민군의 재기, 공주대격전, 그 실패와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의 체포 등 방대하고 심각한 역사적 사실들을 취급하고 있다.

역사적 대사건을 다룬 이 소설은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결합함으로써 높은 경지의 사상예술성을 성취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묘사의 천재’라고 불리었던 박태원의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묘사와 능숙한 고유어 구사를 통해 풍부한 민족적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언어 형상적 차원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부패한 봉건 통치자들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그려지지만, 봉건적 통치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애국정신을 크게 시위한 것으로 의의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갯오농민전쟁』은 “계급투쟁의 역사를 똑똑히 인식시키고 계급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김종희, 「월북 후 박태원 역사소설의 시대적 성격 고찰」, 비평문학, 2009, p.100-101

박길남, 『수필시대1』, 문예운동사, 2006, p.27-31

박태원, 『갯오농민전쟁』, 공동체, 1988, p.8-10

우수영, 『동학학보 제27권』, 「특집논문 : 동학의 사상적 특성과 흐름 분석 ; 박태원<갯오농민전쟁>에서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위상」, 동학학회, 2013, p.31

7.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국어국문학과 20151107 김유나

김남주 시인의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작품들을 모아 편찬한 시선집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에 수록된 작품이다. 제목 속 ‘황토현’은 정읍에 있는 작은 고개로, 동학 농민군이 승리했던 ‘황토현 전투’의 배경이 된 곳이다. 다음은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의 일부이다.

한 시대의 /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 고독과 공포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 암울한 시대 한 가운데서 / 말뚝처럼 햇불처럼 우뚝 서서 / 한 시대의 아픔을 / 온 몸으로 한 몸으로 껴안고 / 피투성이로 싸웠던 사람 / 뒤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 승리 없는 투쟁 / 어떤 불행 어떤 고통도 /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 (후략)

이 시는 농민대회장에서 읽힌 까닭에 결의에 찬 낭독시의 어조와 형식이 시의 시적사유를 떨어뜨린다는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시가 쓰인 당시 시대상황 및 시인의 사상과도 연결이 된다. 전봉준이라는 혁명적 인물을 내세워, 독재정권 속에서 민중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시에 담긴 것이다. 따라서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는 동학농민운동과 전봉준이 후대의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에서는 앞서 말했듯 전봉준을 민중의 지도자, 혹은 위대한 혁명가와 같은 투사의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싸웠던’과 같은 시어들은 전봉준을 고독한 영웅, 혹은 선구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춘다. 또한 시 속에서 전봉준은 ‘말뚝’이나 ‘햇불’로 표현된다. 전봉준을 ‘말뚝’으로 표현한 것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 인간, 즉 당시 사회운동이 요구했던 투사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햇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1980년대 투사의 전형적인 이미지이다. 당시 사회운동가들은 대중을 깨우고, 민중의 앞에 서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봉준이 ‘햇불’로 표현된 것은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봉준은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으로 나온다. 전봉준을 죽을 걸 알면서도 싸웠던 비극적 영웅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는 군사정권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시인의 자각과 함께 비록 죽음을 맞을 지라도, 그 죽음이 조국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낼 것이라는 생각을 보여준다. 정리해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이상적인 모델로 형상화함으로써 시인은 1970~80년대 민중과 운동가들에게 ‘저항’이란 무엇인가, ‘저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정경은, 『한국시학연구』 35, 「현대시에 형상화된 전봉준 이미지의 변모양상 고찰」, 한국시학회, 2012, p.364-367

8. 유적지와 관련된 문학작품 속 배경

- 정희성, 「황토현에서 곶나루까지」

이 겨울 갑오농민전쟁 전적지를 찾아/ 황토현에서 곶나루까지 더듬으며/ 나는 이 시대의
기묘한 대조법을 본다 /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가 세웠고
/ 황토현 녹두장군 기념관은 전두환이 세웠으니 / 광주항쟁 시민군 위령탑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 생각하며 지나는 마을마다 / 텃밭에 버려진 고추는 상기도 붉고 / 조병갑이
물세 받던 만석보는 흔적 없는데 / 고부 부안 흥덕 고창 농투사니들은 지금도 / 물세를 못
내겠다고 아우성치고 / 백마강가 신동엽 시비 옆에는 / 반공순국지사 기념비도 세웠구나 /
아아 기막힌 대조법이며 모진 갈등이며 / 곶나루 바람 부는 모래펄에 서서 / 검불 모아 불
을 싸지르고 / 싸늘한 성계육 한점을 씹 으며 / 박불똥이 건네주는 막걸리 한잔을 단숨에
켄다

- 최두석, 「대꽃 2 - 전봉준」

전봉준의 토담집 봉창의 한지가 바람에 울고 있었다. 이 울음은 조선 모든 초목의 이파리
에서 공명하여 논밭에 잠든 손을 깨워 일으켰다. 콩밭 수수밭 고구마 넝쿨을 헤치고 손은
서릿발 선 논둑을 걸어 맨발로 봉준의 사립을 열었다. (열린 문으로 수십 인의 농군이 뛰쳐
나갔다.) 손이 봉준의 헛간에서 두엄을 치고 여물을 썰는 동안 농군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
했다. 넘실대는 만석봇물이 아니더라도 분노의 봇물은 터뜨려 동네동네를 뒤덮어 흘렀다.
이 물결을 이끌고 봉준은 부안, 정읍, 고창, 무장, 영광……

-송기숙, 「녹두장군」 제2부 中 263쪽

“칼노래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신사 수운 선생께서 여기 전라도 남원 선
국사 은적암에 머무르실 때 지으신 노래올시다. 여기 은적암에서 선사께서는 석 달을 머무
르셨는데, 그 사이 도력이 더욱 왕성하시니, 그 희열을 금치 못하여 스스로 노래를 지으시
어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을 타서, 목검을 쥐고 묘고봉상에 홀로 올라 노래를 부르며 칼춤을
추시니, 그 노래를 일러 검걸 즉 칼노래라 하였습니다.” 사내는 음조를 넣어 너스레를 떠
다음, 작대기를 들어 겨냥하는 시늉을 했다. 군중이 빙 둘러섰다. 사내는 대적세로 칼을 핵
내두르며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며 칼노래를 읊기 시작했다.

시호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 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 하리
무수장삼 펼쳐입고 이 칼 저 칼 너죽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줄을시고 줄을시고 이내 시호 줄을시고.

-박태원, 『갑오농민전쟁』 제7부 中 290쪽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몸이면서 이 시각까지 목숨을 이어온 것은 오직 이 시각을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다. 어제 저녁 전주를 향해 떠나올 때부터 이 시각까지 이상하리만치 활기롭게 웃으며 이야기한 것은 마치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반짝 빛나는 것과 같이 운명하기 전의 마지막 힘이었다. ‘출진가’ 대합창이 한창 계속되고 있었다.

어화 농부들아
모두 떨쳐 나오거라
척왜척양 보국안민
우리들이 할 일이라
우리가 아니하면
어느 누가 하여주리

안팎의 원수들을
모조리 쳐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아
좋은 세상 살아보세

노랫소리에 전주성이 그대로 떠나갈 것만 같았다.

6조 - 금오신화 (김시습)

1. 김시습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11136 장성은

김시습은 1435년(세종17년) 서울 성균관 북쪽 반궁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일성, 어머니는 선사 장씨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태어난 지 여덟 달만에 글을 알기 시작했다 하는데 집안 어른 최지운이 그의 비상함을 알고 시습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1437년(세종19년) 3세에 시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유학』, 『소학』 등을 공부했다. 1439년(세종21년)에는 세종이 승정원을 시켜 김시습을 시험한 뒤, 능력을 칭찬하여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이에 오세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모친의 정성으로 선비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13세까지 이계전, 김반, 윤상에게 사서삼경을 배우고 역사서와 제자백가서를 독학했다.

1449년(세종31년) 15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3년 후 1452(문종2년)때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외숙모의 보호를 받으며 삼년상을 치렀다. 김시습은 훈련도정 남효례의 딸과 혼인하고 서울에 올라와 과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1453년(단종원년) 봄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삼각산 중흥사에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절에서 단종의 양위 사실을 듣고 통곡 끝에 책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은 후 방랑길에 올랐다.

1456년(세조2년)에 북계산 초막동에서 반체제 인사들과 어울리다가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처형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남터에 버려진 박팽년, 유응부, 성삼문 등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노량진에 묻었고, 단종을 그리며 『자규사』를 지어 불렀다. 1458년(세조4년) 24세에 함께 어울리던 인사들과 더불어 정몽주, 이색, 길재의 초혼제를 지낸 장소인 공주 동학사를 찾아가 사육신을 위한 초혼제를 지냈다. 얼마 후 단종이 죽자 다시 동학사에서 단종의 초혼제를 지냈다. 천우들과 헤어져 승려 차림으로 관서 지방을 유람하면서 학문과 유교, 불교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관서 지방을 유람하면서 남긴 기록들을 모아 『유관서록』을 엮었다.

1465년(세조11년) 경주 용장사 부근에 금오산실을 짓고 정착하여 살았다. 세조의 환도명령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37세 무렵까지 금오산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지었다. 1472년(성종3년) 38세에 서울로 돌아와 새 조정에서 임금을 보필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경전을 다시 익혔다. 그러나 관직에 진출하고자 했던 꿈이 좌절되자 수락산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1481년(성종12년) 머리를 다시 기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 환속 후 안 씨의 딸과 혼인하나 이듬해 아내가 죽고 조쟁에서는 폐비 윤 씨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 지방으로 방랑길을 떠났다. 1493년(성종24년) 59세에 부여 무량사에 머물면서 절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에 발문을 썼다. 이곳에서 병들어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21년(중종16년) 이자가 김시습의 시문을 모아 책을 만들고, 『매월당집서』를 썼다. 1582년(선조15년) 선조의 명으로 『매월당집』이 편찬되었고, 이이가 왕명을 받아 『김시습전』을 지었다. 1782년(정조6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김시습, 『금오신화』, 민음사, 2012, p.169-173

류수, 김주철 옮김, 『금오신화에 쓰노라』, 보리, 2011, p.563-567

이종호, 「매월당 김시습 : 지조와 광기의 천재」, 일지사, 1999

2. 김시습 일화

인문학부 20161059 엄지호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은 어린 시절부터 그 총명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 김시습이 세 살이 되던 1437년 봄에 이르러 말을 조금 자유롭게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외할아버지에게 ‘시를 어떻게 지어요?’ 하고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일곱 글자를 나란히 잇고 평측(平仄)을 맞추고 대우(對偶)와 압운(押韻)을 하는 것이 시란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 뒤로 김시습은 시를 짓는데 크게 재미를 느껴 자주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며, 시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를 짓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연구를 짓기에 이르는데, 그 시는 아래와 같다.

비도 안 오는데 천둥소리 어디서 나지 無雨雷聲何處動
누런 구름이 풀풀 사방으로 흩어지네 黃雲片片四方分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총명한 머리에 비해 관직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단종 폐위 이후에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세종에 대한 불만을 품어 관직에 나아가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대한 그의 일화 중 중흥사에서 일화가 유명하다. 1455년 삼각산(현재의 북한산) 노적봉 아래에 위치한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던 김시습은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손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김시습은 사흘 밤낮을 통곡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경정과 사서 그리고 과거 공부용 서적들을 모두 모아 불태워 버리기에 이른다.

그 후 모든 책을 불태운 김시습은 중흥사를 나와 중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입산한 뒤에 지은 자작시 ‘백년(百年)’에서 읊었듯이 김시습은 사람의 백 년 인생은 나는 한 마리의 새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천고에 빛나는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유함을 자랑하던 중국 춘추 시대의 제경공이 되기보다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 은나라의 충신 백이가 되기를 원한다. 쫓겨난 임금에 대한 절의는 김시습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목표였던 것이다.

세조의 즉위 이후 모든 서적을 불태운 김시습은 중흥사를 나와 강원도 인제의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에서 승려가 된다. 그 후 지금의 철원군에 속한 금화(金化) 남쪽의 금난면으로 향해 그곳에서 세조의 즉위에 반대해 산속으로 숨어든 박 씨 일가와 정재, 조상치 등과 함께 살았다.

1456년 6월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옹부 등 여섯 신하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형당하였다. 김시습은 육신(六臣)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한성으로 달려갔고, 사형당한 육신의 시신은 저잣거리에서 널브러져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연려기술’에 따르면 김시습이 박팽년, 유옹부, 성삼문, 성승 등 (다른 한 사람의 기록은 없다) 다섯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에 묻고 ‘성씨지묘’, ‘이씨지묘’ 등으로 적은 작은 돌로 묘표를 대신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8, p.81-83, p.131-134

이종호, 「매월당 김시습 : 지조와 광기의 천재」, 일지사, 1999, p.9-14, p.30-39

3. 김시습의 업적

국어국문학과 20101128 이정욱

김시습에 대해 가장 흔히 얘기되는 것이 국내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금오신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설을 썼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문학계는 그의 천재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의 천재성은 오히려 당시로서는 기괴함으로 다가선다. 그래서 사상사 연구자들은 정작 그의 천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철학에 있다고 말한다.

“금오신화”를 봐도 알 수 있듯 그는 유·불·도 3교에 정통해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3교의 벽을 허물고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그는 유교의 원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보지 않았다. “유교도 불교도 모두 하나의 도(道)로 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유교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조선 사회에서는 반(反)체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는 당시 사회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양반의 자제라도 일을 해야 한다”며 수락산 시절 그의 제자들에게 발일을 시키기도 했고 신분 문제에 이르면 지배층이 경악할 정도의 과격한 말들을 한다. “신분과 계층의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라”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소양을 계발한다면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가 관직에 등용됐다 해도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이 같은 자유·평등의 사상은 구한말 개화파에 의해 꽃피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 해석에 따르면 김시습은 무려 4백년이나 앞선 생각을 했던 사상가가 된다.

이런 개방적인 사상이외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애민의(愛民議)」를 집필 하는 등의 민생에도 힘쓰며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밤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는 배짱 있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관서지방을 유람하며 역사의 고적을 찾고 산천을 보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이는 「매월당집」에 「탕유관서록(宕遊關西錄)」으로 남아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김시습은 전쟁이나 공직에서 뚜렷한 공을 세우는 등의 큰 업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으며 육경자사(六經子史)로 지방청년들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분개하며 보던 책들을 모두 모아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등의 소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인다.

당시에는 이런 김시습과 친분을 두고 가까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김시습은 살아서는 어느 한곳에 오래 정착하기 보다는 방랑을 일삼았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문학작품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그의 인생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한세상을 풍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김시습 당시 보다는 후세에 인정받게 되어 사후 종종 시대에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으며, 선조는 이이를 시켜 시습의 전기를 쓰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해동의 백이(佰夷)라 하였으며 집의의 벼슬을 추증, 남효온과 함께 영월 육신사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정미현, 「김시습의 작가의식 연구: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2006, p.22-27

4. 김시습의 작품 활동

국어국문학과 20141131 이소정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천재성을 보인 조선시대 초기 문인이다. 열세 살 적부터 성균관 대사성 벼슬을 하던 김반의 문하에서 글공부에 힘쓰던 그는 1455년 6월 서울 수락산에서 큰 뜻을 품고 글공부에 몰두하던 중 세조의 찬탈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사흘 동안 읽던 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대성통곡하다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이로부터 김시습의 방랑생활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오신화>등의 문학적으로 주요한 작품들을 남긴다.

수락산에서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한 김시습은 1458년까지 관서지방을 두루 다니며 시집 <탕유관서록>을 썼다. 1460년까지 그 사이에는 관동지방에 머물다 호남지방으로 내려갔으며 1463년 이후에는 영남에서 생활하였다. 여러 지방을 다니는 기간 동안 그는 <탕유관동록>, <탕유호남록>, <유금오록>등의 시집을 계속 썼는데 이를 합한 것을 <사유록>이라 한다. 김시습은 <사유록>에 원한과 울분으로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생활을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고통과 연관시켜 노래하였다. 포악한 탐관오리들과 지주, 자린고비들을 풍자하는 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애국 열사들의 열의와 절개 또한 노래하였다.

그가 노래한 내용별로 예를 들자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반영한 시로 ‘산골 집을 지나며’, ‘산골 농사꾼’, ‘가물의 한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들에서 가을이 왔지만 쓸쓸한 산골마을에 송아지조차 야위었는데 걷어 가는 것에 여념이 없는 무자비한 악탈상을 증오하고, 저주 하고 있다. 더불어 양반의 악행을 폭로, 비판하고 야유한 시로는 ‘딱다구리’, ‘울분에 겨워서’, ‘여우’등으로 간악하고 교활한 짐승으로 묘사하며 강산을 병들게 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시로는 ‘여강의 어부에게’, ‘박연폭포’, ‘삼석연을 지나다가 주인에게 드리노라’등이 있다. 이 시들에서는 주위의 부귀영화에 대한 갖은 유혹을 물리치고 타락한 당대 사회현실에 물들지 않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는 강직하며 정의감에 불타는 김시습의 사상과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애국을 주제로 노래한 시로는 ‘고민에 잠겨서’, ‘나그네의 밤’이 있다.

1464년 경주 금오산에서 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영부주지’ 등 다섯 편의 소설을 엮은 소설집이다. 소설의 사건 전개, 허구적인 창작수법을 살펴보면 김시습의 창작의욕이 의식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눈에 띄는 점은 그는 작품을 쓰면서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감정을 잃지 않은 것이다. 조선의 풍속, 조선의 자연, 조선의 도시와 마을을 그렸고 조선의 여성, 조선의 상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물을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증오하던 왜적, 홍두군 등의 침략사실을 소재로 삼아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을 소설 속 사건에 따라 생동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와 <사유록>, <금오신화>뿐만 아니라 김시습의 사상과 방랑생활을 볼 수 있는 2,200여수의 시가 <매월당집>에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참고문헌》

김시습, 『금오신화에 쓰노라』, 보리, 2005, p.568-578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p.3-11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p.309-330

5. 김시습 대표작품 및 분석

인문학부 20161048 손은정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알려진 작품이고, 총 다섯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 창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삼십 대에 약 칠년 동안 경주 금오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작품을 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각각의 이야기가 완결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독립된 작품이지만 공통점이 많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금오신화』의 다섯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만복사저포기」는 남원, 「이생규장전」은 송도, 「취유부벽정기」는 평양, 「남염부주지」는 경주, 「용궁부연록」은 송도 등의 지명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란 역사적 사실이 작품 속에 나타난다. 이런 우리나라 구체적 공간과 역사적 사건이 제시되는 것은 작품이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고, 한국인의 풍속,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하고 있음을 뜻한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는 왜구의 침입으로 죽은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생규장전」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은 여인과 계속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루며 침입에 대한 아픔을 그렸다. 「취유부벽정기」는 선녀와 꿈에서 만난 이야기인데, 만났던 장소인 부벽정은 작품 배경인 평양을 상징하면서 현실세계와 선계의 매개 공간이다. 「남염부주지」는 저승을 여행하며 유교·불교·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박생과 염부의 왕 사이의 문답식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잘못된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용궁부연록」은 글에 능한 주인공이 용궁으로 초대되어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큰 환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위 작품들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소재의 신선함이 있고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모두 특이한 일을 경험하고 예전의 삶을 지속하지 못한 주인공들이 세상을 등지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 현실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역사적 일에 휘말려 높은 정치적 이상과 천재적인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었던 김시습의 불우한 인생과 많은 지식인들의 괴로움과 고뇌를 소설로 승화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비현실적 세계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오신화는 「남염부주지」를 제외한 네 작품이 모두 삽입시 형식을 취한다. 작품을 읽는 중간에 삽입시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김시습, 『세계문학전집204 금오신화』, 민음사, 2009, p.159-168

6. 김시습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51110 김진경

김시습은 자유인이자 방외인으로서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작품에 담아냈다. 또한 김시습은 자신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로 평가의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발단이나 그 사실 자체 내부의 주도적 위치에서 파악하고 평가하여 작품에 담아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시습 작품 중 대표작인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며 한국 소설의 출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금오신화는 이전 전기시대의 서사방식을 수용했다. 오랜 세월동안 양성되어 오던 서사 문학적 의식을 소설문학의 형태로 바꾸어서 작품에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금오신화는 최초의 소설로서 하나의 문학 양식을 확립하였고 이 후 소설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후대 소설에 미친 영향의 예로는 소재, 성격 등이 있다. 그의 작품 중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은 주인공이 꿈에서 다른 세계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는 후에 몽유록, 몽자류 소설에 영향을 미친다.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만복사저포기는 귀신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전에 없던 소재를 다루었다. 또한 그는 비현실적 소재로 비현실적인 것을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 당대 현실의 이념과 질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불화와 대립을 잘 나타내며 뚜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과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대에는 그의 작품이 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유교와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사상을 모두 자신의 작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그 현실을 파악하여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전에 없던 소재로 작품을 내고 자신의 사상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김시습의 모습은 현재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김시습의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류경아, 「<금오신화>의 서사방식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오대혁,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역락, 2007

7. 유적지

인문학부 20161076 이제영

1) 전남 고흥 중흥사(重興寺) 터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찬탈(계유정난) 소식을 듣고 그는 3일을 통곡한 끝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10년 동안 전국을 유랑하였으며, 이 여행의 견문과 정회를 담은 기행시집인 「매월당시 사유록(梅月堂詩 四遊錄)」을 남겼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633번지 일대에 있었던 중흥사의 터만 남아있다.



▲중흥사지 터

▲중흥사지 옛 모습

2) 경주 남산 금오산실(金鰲山室)

김시습은 경주의 남산(일명 금오산) 경주 용장사 경실에서 31세(1465) 때부터 37세(1471) 까지 칩거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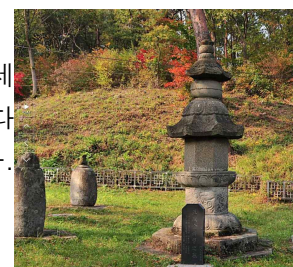
▲용장사곡 삼층석탑 전경

▲삼층석탑 기단

▲삼층석탑 탑신부

3) 무량사

그는 충청도 홍성 무량사(無量寺 : 현 충남 부여군 의산면)에서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의 유해는 유언대로 3년 동안 매장되었다가 유교식 아닌 불교식으로 화장하였고, 유골은 부도에 안장되었다. 현재 무량사 산신각에 김시습의 초상화가 봉안되어있다.



▲김시습 부도

《참고문헌》

이종호, 「매월당 김시습 : 지조와 광기의 천재」, 일지사, 1999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사진출처 : www.cha.go.kr

8. 금오신화 속 만복사

만복사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만복사에서 지포놀이를 하다’에 중요 장소로 나온다. 만복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기린산에 있었던 절로, 현재는 남원 시내에서 순창으로 가는 왕정동 도로변에 큰 절터로 남아 있다. 만복사는 신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기록에는 ‘고려 문종 때 세워졌는데 동쪽에 5층전이 있고 서쪽에 2층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원의 양생은 만복사 동쪽 방에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시로 읊으니 홀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양생은 삼월 스무나흘 만복사에서 소원을 빌었다. 아래는 양생이 읊었던 시구이다.

한 그루 배꽃나무 외로움을 함께하누나.
가련하여라, 달 밝은 이 밤을 허송하다니.
젊은이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로
어디서 아름다운 임이 통소를 불러 보내나.
물총새 쌍을 이루지 못해 외로이 날고
원앙도 짝을 잃고 맑은 물에 먹을 감네.
누구의 집에 약속있나 바둑 두는 저 사람
한밤 등불꽃 점을 치며 창에 기대어 시름하네.

이에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게 되고 내기에 이기어 약속대로 여인을 얻는다. 잠시 후 나타난 여인은 만복사에서 양생을 만나 「만강혼」을 부른다.

쌀쌀한 봄 추위에 명주 적삼이 얇구나.
몇 번이나 애태웠던가, 향로 불 식어 가니.
저문 산은 검푸르게 엉겨 있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펼쳐져 있네.
비단 장막 원앙 이불 함께할 임이 없어
금비녀 비껴 꽃고 통소를 불러 보네.
애달파라, 세월은 빨라
마음속엔 번민만 가득.
등불은 사워어 가고 온 병풍은 나지막한데
홀로 눈물 흠친들 누가 위로해 줄까.
즐거워라, 오늘 밤은
추연의 피리 한 곡조가 봄날을 되돌려
무덤 속 천고의 한을 개뜨리니
금루곡 고운 가락에 술잔을 기울인다.
후회스럽구나, 지난날 한을 푸고
눈썹을 찡그린 채 외로이 잠들었던 것이.

이후 여인은 달이 서산 봉우리에 걸리고, 닭 울음소리가 외진 마을에 울려 퍼지자 양생을 이끌고 만복사에서 벗어나 무성한 풀숲 사이로 들어갔다.

7조 - 춘향전

1. 춘향전의 줄거리 및 성격

국어국문학과 20141120 박은지

1) 줄거리

전라도 남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이 방자와 함께 광한루에서 시를 읊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월매의 딸 춘향은 그 광한루 밑 시냇가에서 향단과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다. 이런 춘향을 본 이도령(이몽룡)은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렀고, 그날 밤 춘향과 가약을 맺는다. 이도령과 춘향은 곧 깊은 사랑에 빠졌으나 이도령의 아버지 이부사가 갑자기 서울로 영전하게 되어 이도령과 춘향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부사로 변학도가 왔는데, 춘향이 절세미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춘향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청을 들지 않겠다고 이를 거절했고,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한편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학업을 닦아 문과에 급제하고, 마침 호남 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춘향이 옥살이로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도령은 변학도의 생일 잔치날에 찾아갔다. 이몽룡은 각 읍의 수령이 모인 틈을 타서 어사출도를 단행하여 변학도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해 내어 재회한다.

2) 성격

『춘향전』은 단일 작품이 아니다. 판본 이본이 5종, 사본이 약 20여 종, 활자본이 50여 종, 번역본이 6,7종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경판 《춘향전》과 완판 《열녀춘향수절가》이다. 목판본으로 경판·안판·완판 등 3종이 다 나왔고, 활자본으로도 1911년에 발행한 《옥중화》를 비롯해서 30여 종이 있다. 『춘향전』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수많은 이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집체이다. 사람들은 최초의 춘향전을 그대로 계승해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개작하며 새로운 춘향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 대개 ‘설화→판소리→소설’의 변이·진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 이야기에 잡다한 설화가 곁들여져 하나의 판소리로 응집되는 도중 차츰 암행어사 설화와 열녀 설화의 요소가 삽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춘향전』은 원작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이본으로 존재하며, 애초 작가의 작품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자들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인환, 『춘향전』, 신원문화사, 2002

설성경, 『춘향예술사 자료 총서』, 국학자료원, 1998

2. 춘향전의 문학적·민족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41126 안혜린

고전으로서의 「춘향전」은 그에 대한 연구사가 고전 소설 연구사적 자취를 대표한다고 지적될 정도로 문학사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왔다. 「춘향전」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보편성과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저항을 다룬 사회성의 측면, 서사적, 서정적, 극적 구성을 조화롭게 완결한 구조미학적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고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춘향전」은 구전 설화에 토대를 둔 국문 소설의 대표작으로 다루어지면서, 주제 의식과 예술적 현상화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고전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춘향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춘향 이야기가 재능 있는 광대들에 의해 판소리 춘향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세기말 무렵으로 짐작된다. 그 후 춘향가는 뛰어난 광대들의 손을 거치면서 고도의 예술성을 이룩함과 동시에 민족예술의 대표로써 자리매김하였다. 「춘향전」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장르 내적으로 발전하며 생명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시대적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설, 창극, 영화, 마당극 등으로 장르적 전환을 꾀하였다. 이는 「춘향전」의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문학, 예술 작품으로써 「춘향전」의 입지를 가능케 하였다.

우리 민족이 「춘향전」이라는 이야기에 매료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도령과 춘향이 보여준 변치 않는 숭고한 사랑의 힘과 그들의 육체적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농염한 관능의 미학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민중들은 해학이라는 유용한 양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양반문화를 비틀고 뒤집어버림으로써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발랄한 삶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을 이야기 속에 담아냈다. 이런 민중의 염원 속에서 피어난 「춘향전」의 인물들은 다른 작품에 비해 각각의 독특한 개성들이 두드러진다. 이런 인물들은 부정부패로 만연된 잘못된 현실에 대해 거침없이 내뿜는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춘향과 월매가 추는 신명풀이 춤에 의한 문제해결까지 시원하게 담아낸다. 이런 요소들로 가득한 「춘향전」은 우리의 다양한 입맛을 골고루 만족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춘향전」이 오랫동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다.

이러한 「춘향전」이 지닌 가장 큰 특성은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춘향전」은 양식에 따라서, 시대나 취향에 따라서 기묘한 변신을 할 수 있는 원리를 구비하고 있다. 변이 속에서 질적인 성숙을 이룩하며, 그 생명력을 지켜왔기에 「춘향전」의 역사는 곧 우리 예술사의 귀중한 척도가 된다. 이는 한 개인적 작가나 예술가만의 공로가 아닌 민족 구성원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 그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작한 광대한 작가들의 총체적 성과이다. 360년이라는 시간동안 한민족의 대표 문학으로 자리하며 그 시간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와 함께하고 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배, 『춘향전의 지평과 미학』, 박이정 출판사, 2010, p.13-38

설성경,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003, p.16-18, p.257-260

3. 춘향전과 전북 남원과의 관계

인문학부 20161051 신수연

인문학부 20161097 정주호

1) 춘향전과 전북 남원과의 관계

<춘향전>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로 발전하여, 소설로 개작되어 관련된 설화가 다양하다. 그 중 어느 하나를 근원설화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지거나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 전해지는 것들이 많다.

<춘향전>은 남원에서 널리 이야기되던 설화를 모태로 형성되었는데, 작품의 소재적 근원이 된 근원설화와 작품의 발생에 관한 발생설화가 구분되어 있다. 근원설화에 열녀설화(烈女說話), 암행어사설화(暗行御史說話), 신원설화(伸冤說話), 염정설화(艷情說話)가 있고, 발생설화로는 무가발생설(巫歌發生說), 양진사 창작설(梁進士 創作說) 등이 있다. 이러한 설화들과 <춘향전>은 남원을 중심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광한루와 동헌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상헌 명창이 부른 춘향가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호남좌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허였것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북강성하고 북통운암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 어리어 남녀간 일색도 내려니와 만고충신 관행묘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 날 수 있겠느냐」

지리산과 적성강은 남원에 걸쳐있다. 외에도 <춘향전>에 등장하는 지명인 반야봉(般若峰), 광한루(廣寒樓), 영주각(瀛州閣) 등은 모두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해있다. 또한 원작가로 제시되는 '조경남'이 의병장 출신으로, 임병양란 후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춘향전의 지리적 배경이 남원이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춘향전>의 형성에는 남원의 근원설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남원은 오래전부터 '춘향고을'로 널리 알려져 왔기에 <춘향전>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2) 남원의 춘향제

남원의 춘향제는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춘향의 정절과 순수한 사랑을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며 시작되었고, 86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 춘향제는 1931년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역 축제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현행하는 지역 축제 가운데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창출된 축제는 남원 춘향제가 유일하며, 해마다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춘향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한 지방 정부의 성립은 춘향제를 관광자원으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문화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춘향제의 성장과 함께 1986년부터는 <춘향문화선양회>라는 사단법인체를 조직하여 춘향제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양회는 춘향제가 민속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춘향묘정화사업>, <삼동굿놀이>, <용마놀이> 등을 발굴, 재현을 통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양회의 조직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이권과 관련한 잡음이 생겨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2008년부터 새롭게 구성된 제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춘향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춘향제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원의 이미지를 사랑의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춘향제의 주제를 ‘사랑’으로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남원 춘향제는 현대까지 지역 사회의 관련 집단이나 개인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춘향제의 문화적 성격과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춘향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개인들의 관심과 입장, 그리고 그것들의 개입이 맞물린 지점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춘향전과 남한 춘향전의 비교

한민족이 공유해왔던 문학예술이 분단 이후 서로 조금은 다른 방향을 향해갔다. 북한의 <춘향전>은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렐녀 춘향 수절가>를 토대로 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생이별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전기적 성격을 벗어나 현실에 토대를 두는 사실주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즉 사실주의수법에 의존하여 조선의 봉건사회말기의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환상적 요소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근대적 작품이라고 여길 수 있다. 기존 <춘향전>에서 월매는 성격이 드센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나 <민족가극 춘향전>에서의 월매는 빈부귀천을 저주하는 순박한 보통어머니로서 관중의 사랑을 받게 형상화 하였다.

김정일은 <춘향전>을 순수사랑의 문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봉건적 신분제도의 반동성을 보이며 근본문제를 빈부귀천에 관한 문제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남한 사회에서는 춘향과 이도령과의 신분을 초월한 ‘승고한 사랑’의 주제를 높이 평가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 체계인 북한사회에서는 ‘중세봉건왕조의 계급적 모순을 비판’한 점에 높은 점수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가극 춘향전>은 남녀 간의 참다운 사랑마저 갈라놓는 봉건적신분관계가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기본으로 이를 타파해야한다는 사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민들의 원한과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전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배,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학회, 2008, p.189-212
 설성경, 『춘향전의 비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설성경,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003
 설성경, 『춘향전 근원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회 춘향예술 연구회 학술발표회 요지,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김중식·문학사연구회, 『불멸의 춘향전』, 청동거울, 1999
 춘향제 공식홈페이지 : www.chunhyang.org
 유목화, 『남원 춘향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2012

4. 춘향전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

인문학부 20161106 최예진

1) 남원지방의 춘향설화

남원고을에 한 늙은 기생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춘향이라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다. 처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행지도 발랐으나 얼굴이 못생겼다. 그런데 고을의 원의 아들이 춘향기와 뜻이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좋은 일에는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르는지, 얼마 후 부사는 서울로 돌아가서 집안이 망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원의 아들도 춘향에게 소식을 전할 형편이 못되었다. 춘향은 사랑하는 그 총각이 서울에 가서도 과거급제도 하고 잘되어서 자기를 찾아오겠다고 하였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달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의 소식이 오지 않자 처녀는 근심에 잠기게 되고 근심은 병이 되어 끝내 원한을 품은 채 병들어 죽어버렸다. 춘향이 죽은 뒤로 남원지방에는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다. 마을들에는 뒤송송한 말들이 돌았다. 고을의 관가에서 난알들을 뽀뽀 굶어가니 하늘도 노해서 흉년이 들게 한다니, 앗다 그뿐인가. 엇친 데 덮친다고 사또의 아들이 춘향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한 번 떠난 후 소식 한 장 없어서 춘향이 죽었는데 왜 흉년이 안 들겠냐니, 이랬든 저랬든 흉년이 내리는 것은 하늘재앙이 아니라 사람 재앙 탓이라니 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때 고을에서 이방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정조를 지킨 여자를 위로하는 글을 짓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그 글을 읽어 죽은 춘향의 넋을 위로하게 하였다. 그 후로 흉년을 면하게 되었다. 이방이 지어서 무당의 굿에 올렸던 글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차츰 다듬어져 춘향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2) 전라도지방의 춘향설화

남원고을 부사의 아들 이도령이 춘향이라는 어린 기생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후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헤어진 후에도 춘향은 이도령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켜 깨끗하게 살아갔다. 새로 부임해온 부사 탁종립이 춘향에게 마음을 두고 강박하였으나 춘향은 그 강요를 물리치고 이도령을 위하여 절개를 지켰다. 탁종립은 춘향이 제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여 죽여 버렸다. 고을사람들은 죄 없이 맞아 죽은 춘향을 애석하게 여기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춘향의 사연을 글로 적어서 광대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게 하였다. 그 노래의 내용은 춘향의 원한을 씻어주고 춘향의 절개를 찬양하는 것이며 따라서 고을 원의 그릇된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글이 점점 전해지면서 춘향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고문헌》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한국문화사, 1995, p.105-109

5. 춘향전과 춘향가 및 현대판 춘향전

인문학부 20161056 안예은

1) 춘향전의 각색과 춘향가의 관계

춘향전이 많이 각색되는 이유는 춘향전이 다른 고전보다 패러디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패러디의 선행 작품인 원 텍스트는 당대 독자들의 지식, 관심에 부합되는 예술 문화 형식으로 사회적 공인도가 있어야 한다. 대개 인기 있는 대중적 작품이 선행 작품이 된다. 시대를 초월해서 대중적 호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결과 춘향전에는 우리 민족의 예술과 문화의 총체적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춘향전은 사회적 공인도가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춘향전이 패러디의 선행 작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패러디 원 텍스트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내용일 뿐 아니라, 패러디 소설이 가지는 이중적 목소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 춘향전의 패러디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춘향전은 시대적·사회 문화적 요건에 따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독자들에게 새롭게 수용되는 작품이다.

춘향가, 판소리 창자는 이야기의 큰 도식을 유지한 채 장식적 세부를 구성하였다. 춘향가의 장식적 세부의 구성 양상은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또다시 몰입하며, 즐거움을 얻게 하는 판소리 연행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춘향가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을 이야기를 지연키기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대중의 기대의 충족에 대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관념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수용자의 상상에 호소하며, 과장된 행위의 기술과 과도한 정서의 표출로써 수용자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 낸다.

2) 현대판 춘향전

춘향 이야기가 자주 영상물로 변용된 데에는 ‘새로운 춘향전’을 만들어 보려는 의욕이 많이 작용하였다. 연출자들이 “앞의 것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작품 속에 집어넣고 쉽게 하는 동인은 우선 춘향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랜 세월 적층되는 과정에서 풍부한 의미를 축적한 춘향전은 독자의 해석적 참여가 요구 되는 작품이다. 즉, 춘향전은 다양한 의미 작용을 독자에게 행하기에 독자는 해석적 의미를 만들기 위해 이면을 훑고, 인물과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심도 깊은 춘향전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춘향전 영화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의미를 중심으로 재현 대상과 재현 방식을 변용시키면서 “<춘향전>의 재해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춘향전은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다. 영상으로 표현한 것 이외에는 원본과의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데, 다만 흥미와 감동을 증폭시키기 위해 사건 구성상 몇 가지 내용이 새롭게 첨가되거나 삭제되었을 뿐이다. 인물에서도 춘향의 기본적인 성격은 존재하고, 창작된 시대에 호응하는 성격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탈선 춘향전>과 <방자와 향단이>도 넌센스 코미디로 과거와 현재가 넘나들고 있으며, 원본의 인물이 등장하여 현대적 소재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변용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주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패러디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0, p.13-14, p.94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p.270-281

김중식, 『불멸의 춘향전』, 청동거울, 1999, p.177-178

6. 유적지

국어국문학과 20141124 서채린

1) 광한루원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남원은 춘향의 고향이자 고전 춘향전의 발상지이다. 광한루원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해낸 공간으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시대 대표 정원이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영주(한라산), 봉래(금강산), 방장(지리산) 등을 뜻하는 세 개의 삼신산이 있는 호수와 오작교가 있다. 오작교는 해마다 칠월 칠석이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안타까운 천상의 사랑을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완성시킨 사랑의 다리이기도 한다.

2) 완월정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완월정은 지상인이 달나라를 즐기기 위하여 전통 조선식 누각을 세워 광한루원의 절경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 누각 수중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 축제인 춘향제가 열리고 있다.

3) 월매집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의 무대가 된 집이다.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 구경길에 올랐을 때 그네를 뛰고 있던 성춘향에게 반해, 춘향이 살고 있는 월매집 부용당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집으로 춘향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월매집'이라고 하였다. 춘향과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부용당과 행랑채를 재현해 놓았으며,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게 밀랍인형과 생활 도구들을 전시해 놓았다. 사랑의 맹세판과 장원급제 기원단이 있다.

4) 춘향관(좌), 춘향사당(우)



① 춘향관(좌)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춘향의 일대기를 9폭의 대형 화폭에 담아 춘향의 열과 수절 정신을 민족혼으로 오래 기리고자 1992년 개관되었다.

② 춘향사당(우)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열녀 춘향의 굳은 절개를 영원히 흠모하기 위해서 건립된(1931) 사당이며, 입구대문은 '임 향한 일편담심'을 줄여서 단심문이라 칭한다. 사당의 중앙에는 '열녀춘향사'라는 현판이 있고 안에는 춘향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사당에서 이러한 춘향사당은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이 주축이 되어 권번의 기생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의식 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고자 설립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참고문헌》

남원 광한루원 : www.gwanghallu.or.kr

남원시 문화관광 : www.namwon.go.kr

7.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남원

1) 도령님 거동 보소, 옥언선평 고운 얼굴, 전판같은 채 머리, 곱게 빗어 밀기름에 잠재워 궁초댕기 석황 물려 맵시 있게 잡아 땀고, 쌍문초 긴 동정, 중추막에 도포 받쳐 흑사띠를 가슴위로 눌러 매고 육분 당해 곁들면서 광한루에 이르렀다.

“나귀를 붙들어라.”

광한 진경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바야흐로 이르되 호남의 제일성이라 하겠다. 오작교가 분명 하면 건우, 직녀 어디 있나?

이런 승지에 풍월이 없을소냐. 도령님 이 글 두 귀를 지었다.

드높고 밝은 오작의 배에
광한루 옥섬돌 고운 다락이라.
누구나, 하늘 위의 직녀란 별은
흥나는 오늘은 내가 건우일세.

고명오작선(高明烏鵲船) 광한옥계루(廣寒玉階樓)

차문천상수직녀(借問天上誰織女) 지흥금일아견우(至興今日我牽牛)

2) 이 도령은 오작교 어귀에 이르러 나귀에서 내렸다. 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맑은 강물을 굽어보니, 방자가 자락을 한다.

"이게 오작교라 하는 다리웁고, 이 강물은 요천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선녀들이 놀던 은하수라고 합지요."

"은하수에 오작교라! 이름이 좋구나!"

"어찌 이름뿐이리까. 경치가 아주 그럴듯합지요?"

방자가 웃으며 자락을 한다. 이 도령이 천천히 걸어 광한루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과연 경치가 좋다. 가슴이 활짝 열린다. 참으로 천지는 넓고 봄빛은 다정쿠나.

이 도령이 시정을 못 이겨 다락 안을 살펴보니 문장 재사들의 훌륭한 시들이 붙어 있다. 그중 강희맹의 글이 눈에 띈다.

남원의 이름 높은 광한루에 오르니
유월에도 찬 바람이 뺏속에 스며드네.
계수나무 그늘 비낀 하늘의 집이런가.
붉은 난간 다락 아래 건우가 지나가네.

3) 광한루를 이리저리 거니노라니 시흥이 도도해진다. /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 어떠한지 몰라도 이곳 경치를 당할소냐. 붉을 단, 푸를 청, 흰 백, 붉을 홍 고물고물히 단장하였는데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 방장산, 봉래산이 눈앞에 다가온 듯, 물은 그대로 은하수며 경치는 바로 하늘의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선녀도 있으려다." / "동문 밖 나가오면 장림 숲 선원사 좋잡고, 서문 밖 나가오면 관왕묘(關王廟)는 천고 영웅 엄한 위풍 어제오늘 같삽고, 남문 밖으로 나가오면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 좋삽고, 북문 밖 나가오면 청천삭출금부용(靑天削出金芙蓉) 기벽하여 우뚝 섰으니 기암(奇巖) 등실 교룡산성(蛟龍山城) 줄사오니 처분대로 가사이다."

